서울大學校 同窓會報

同窓會 指標 ①參與하는 同窓會 ②努力하는 同窓會 ③榮光스런 同窓會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暎宰

發行所
서울大學校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第203號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5년 2월 1일 月刊 【1】

서울大研究公園, 21세기 이노베이션의 産室

서울대연구공원 청사진

○포커스(서울대 연구공원)········3면
○관악춘추·······················4면
○느티나무 광장·················10면
○화제의 동문··················16면

(金弘準영화감독·洪淳泰사진작가)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第203號

포커스

서울대 연구공원

기업창업등에 종합지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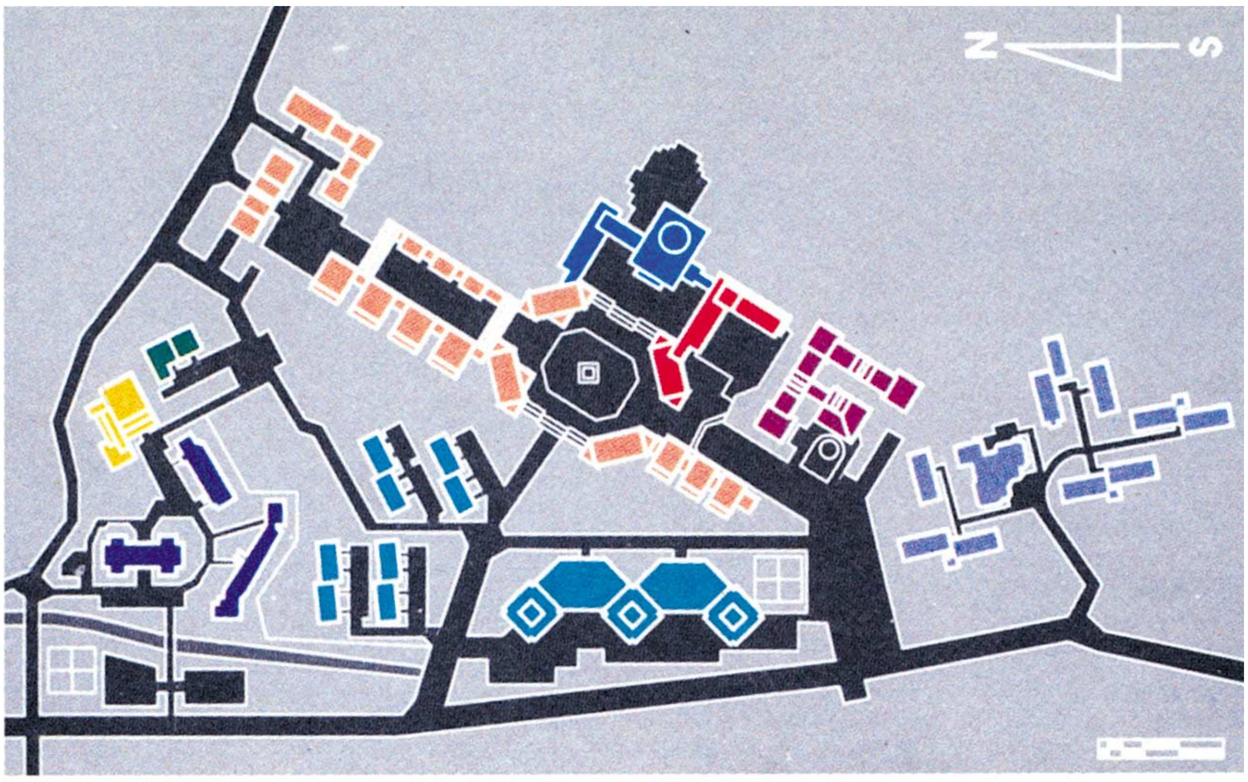
이미 유엔국제백신연구소 유치

지난 1월초 某일간지에는 근래에 보기 드문 광고가 실려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서울대학교가 기업과 손잡고 과학 한국의 미래를 창조합니다」란 카피로 시작된 이 광고는 「서울대학교 연구공원(SNU RESERCH PARK)」조성을 위해 本會와 모교발전기금이 공동명의로 실은 것이다.

연구공원을 미국에서는 리서치 파크라고 부르며, 영국에서는 사이언스 파크라고 한다. 지난 51년 美스탠포드대학에서 시작된 이후, 60년대 건설붐이 일었으며 소강상태를 거쳐 80년대부터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는 그 수만도 1백20여개소 이상에 달한다.

서울대학교 연구공원은 21세기를 대비한 기술혁신 및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관악캠퍼스내에 産·學·硏 종합연구단지 조성을 통칭하는 계획이다. 지난 93년 7월 설립계획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작성됐으며, 그후 교육부 보고 및 토론회를 거쳐 규정이 제정·공포된 한편 94년도 12월에 비로소 마스터 플랜이 완성된 획기적 계획이다.

작년 6월부터 내년 9월까지 현 교수회관 동남측 2만5천평에 조성될 연구공원은 산업체 입주 연구동 7개동, 기업 창업보육시설 1개동, 공동지원시설 1개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동지원시설 ■국제백신연구소 ■산업체연구시설 ■컨벤션센터 ■대학원기숙사

일반적으로 연구공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대학이 있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고속교통체계의 정비여부, 부대생활환경과 연구환경이 적절해야 한다.

리서치 파크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대기업이 많지만 중소기업 및 창업자들의 참여도 만만치 않다. 그것은 인큐베이터(기업 창업보육시설)를 통해 각 기업간에 균형있고 종합적인 산업육성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기업으로부터 자립하고자 하는 자와 벤쳐기업 창시자등 우수인력을 유치하려는 의도도 있기 때문이다.

인큐베이터란 창업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많은 신규사업자들에게 경영 및 기술지도등 각종 연구시설 및 기회를 제공하고 종합지원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시설이다. 70년대 미국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시설은 80년대 크게 확산돼 기종만으로도 1백여개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안산인큐베이터를 비롯해 3, 4개소에서 운영 또는 조성중에 있다.

입주 희망업체는 지정된 위치에 3천평 규모의 연구시설을 건축해 서울大에 기증하면 기증재산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UN국제백신연구소를 유치했으며 LG그룹은 조만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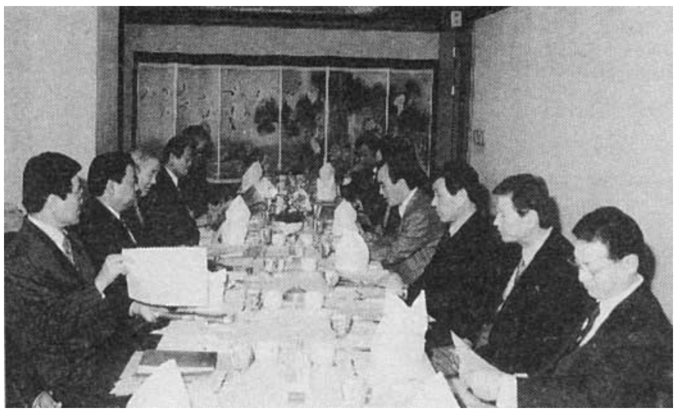
연구공원에서 지원하게 될 계획은 공동 연구프로젝트, 기술정보 관리지원, 기업진단, 분석, 연구개발 협력, 컨설팅 제공, 전문연구인력(병역 특례보충역)지원등 다양하다. 국제수준의 회의 및 숙박시설이 부대시설로 완비될 同연구공원은 작년 2월 발족한 조성추진기획단에서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본회 金在淳회장은 李世震사무처장이 모교에서 本계획에 대한 홍보 지원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하자 『모교의 발전은 나라의 발전이다』『우리의 모교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려 후배들에게 보람과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선배와 동창회의 책임』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조치한 바 있다.

〈駿〉

"진정한 代辯紙 만들겠다"

본보 논설위원 신년교례식



▲본보 논설위원들이 회보제작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本會(회장 金在淳)는 새해를 맞아 지난달 9일 프레스센터에서 동창회보 신년호에 대한 평가와 2월호 준비를 위한 편집회의겸 「논설위원 신년교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鄭宗澤상임부회장겸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金榮國, 孫一根, 崔靑林, 朴應七상임논설위원과 朴世熙, 李東和, 李炯均, 李年憲, 金昌悅, 丘月煥, 安炳璨논설위원, 본회 李世震사무처장등 회보제작 관계자 대부분이 참석했다.

참석 위원들은 덕담을 나눈 후 신년호에 대한 평가 및 2월호 계획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동창회보를 회지 형태로 전환할 것을 재확인했으며, 지면쇄신을 위해 2월호부터 전면 가로쓰기를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本會는 시사저널 주필로 있는 安炳璨위원에게 편집에 대한 실무적인 도움을 구하고, 李炯均 프레스센터 전무이사로부터 기사 및 제목에 대한 조언을 얻기로 했다. 또한 보는 회보, 기다려지는 회보, 철하는 회보를 만들기 위해 진력할 것을 결의하고 그동안 동창회보의 질적 향상과 양적인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17명의 논설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참석위원들은 앞으로 동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의 폭을 넓혀 진정한 서울大人의 代辯紙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관악춘추

신임총장에게 바란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친 두차례 투표로 모교의 제20대 총장이 선출됐다. 신임총장은 금년 3월부터 앞으로 4년간 재임하게 된다.

우리는 총장이 바뀔 때마다 많은 것을 바란다. 이번에도 유난히 많은 것을 바라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본다. 시기적으로 앞으로의 4년은 일찌기 유례가 없는 중대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기간에 20세기가 가고 역사는 21세기로 접어들며, 모교는 세계화의 추세속에서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해야만 한다. 때문에 신임총장에게 큰 기대를 걸게 된다.

대학이 특히 서울대학교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난 선거 기간중 모든 입후보가 제각기 다양한 소신을 피력했다. 그것은 모두가 심사숙고 끝에 마련된 것들이어서 앞으로 대학운영의 큰 지침이 되기에 족한 것이다.

대학의 자율화, 즉 정부로부터의 간섭의 축소, 교수와 연구의 자율화 재정운영의 자율화 등은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점이다. 특히 서울대학교가 그동안 국내에서 제일가는 대학을 자처했으나 지식과 정보가 세계시장을 무대로 삼게 되는 앞날에 있어서는 미진한 점이 많다는 지적등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중 어느 것이고 실천만 된다면 모교는 크게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간교육의 측면이다. 신임총장은 서울대학교의 위상이 바뀌어야 함을 지적하고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직원을 포함한 대학공동체의 형성을 역설했다.

인간교육을 위해 대학공동체의 형성은 아마도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인간교육 특히 人性과 情緖의 함양을 위한 배려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서울대학교가 바로 서면 나라도 든든해진다는 소신에 우리는 많은 공감을 갖는다. 여기서 나라가 바로 서는 조건으로 人性과 情緖함양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시민교육의 측면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은 특히 우리의 모교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외국어교육에 미진한 점이 많았다. 외국어는 읽고 쓰는 일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도자라면 외국어 한두가지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임총장에게 외국어文盲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을 세워주기 바란다.

끝으로 우리 동창회로서는 신임총장이 앞으로 모교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빛내주고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榮〉

大同協 창립총회 3월 개최

「대학의 앞날」세미나 갖기로

◀지난달 20일 열린 大同協 신년교례회

한국대학동창회협의회(약칭 大同協, 發起위원장: 金在淳회장)는 지난달 20일 상의클럽에서 만찬을 겸한 발기인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23개 대학동창회 대표가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金회장을 대신하여 鄭宗澤상임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능동적 참여로 대동협 역할이 제고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동협의 간사인 李世震사무처장은 대동협 창립총회행사 기획안을 설명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창립총회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3월경 「우리의 대학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 및 기념리셉션을 함께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鄭상임부회장은 참석회원들의 청와대 예방을 위해 관계자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黃明秀동국대총동창회장의 건배와 참석자들의 덕담등으로 이날 모임은 화기애애한 가운데 마쳤다. 〈嚴〉

1백주년기념관 청사진 선보여

법대 새해 첫 모임

▲법대동창회는 지난달 18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法科大學同窓會(회장 琴震鎬)는 지난날 18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는 尹世榮 SBS 회장, 金容俊 헌법재판소장, 李龍熙 대우통신회장, 崔秉烈 서울시장, 鄭大哲 국회의원등 本會 회장단을 비롯해 1백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琴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의롭고 안정된, 풍요로운 사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하고 법대 설립 1백주년을 기념한 1백년사 제작과 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해 애써 주신 동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白忠鉉학장은 『최근 18회, 28회 동기회가 발전기금을 출연하는등 동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同會는 모교와 동창회를 빛낸 동문과 최근 영전한 동문에게 축하패를 증정한 후, 경품추첨등 참석 동문들을 위한 여흥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근대 법학교육 1백주년 기념관 청사진과 설계 개요등이 한쪽에 전시돼 동문들의 주목을 받았다.

의대동창회 신입회원환영회

"참 의료인으로 전통 잇길"

醫科大學同窓會(회장 姜信浩)는 지난달 11일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하고 학생의 신분에서 사회인, 의료인, 동창회원으로 성장한 후배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특히 朱槿源명예교수, 韓格富 前의학협회장등 원로선배가 다수 참석해 자리를 한층 빛냈다.

姜회장은 인사말에서 『신입회원을 보니 한결 젊어지는 것 같다』면서 『서울의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따스한 인술을 펴는 참 의료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李純炯학장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는 서울의대동창회의 명예로운 회원이 되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선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예를 쌓는 동창회원이 되길 바라며, 모교와 스승을 항상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韓萬青원장은 『사회인, 직업인으로서 첫걸음을 딛는 여러분은 사명감과 책임감있는 의료인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格富동문의 건배제의로 1부 순서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만찬을 함께 하며 李允聖(모교법의학교수)동문의 사회로 경품추첨과 여흥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志〉

공대동창회 신년 하례식서 엔지니어하우스 모금 홍보

工科大學同窓會(회장 李達雨)는 동창회 활성화와 엔지니어 하우스 건립모금 현황보고를 위한 신년하례식을 지난달 17일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同會 임원을 비롯해 鮮于仲皓학장, 李鎬仁 교무담당학장보, 申玹植학생담당학장보가 참석했으며, 최근 1억2천만원을 모교에 출연한 鄭哲圭(태성고무화학사장) 동문을 특별초청해 엔지니어 하우스 건립기금 모금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李회장은 중간보고에 이어 『현 모금액은 몇몇 동문들의 특별모금에 힘입은 결과』라고 지적하고 『전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 결과 학과동창회 차원에서 회장을 비롯한 간사 및 총무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각 학과에서 추천된 건립위원들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同會에서도 계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기로 했다.

상대동창회

'94 회원명부 배포

商科大學同窓會(회장 張禮準)는 근 4년만에 동창회 회원명부를 발간, 배포중이다.

이 명부에는 1만3천여명 상대동창회원들의 최근 현황이 기재돼 있으며, 同會 사무국에서 1부에 2만원씩 판매하고 있다.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경우는 우송비를 포함한 2만3천원을 「신탁은행 계좌번호: 11501-0029421 예금주: 장예준」으로 입금하고 사무국에 주소를 알려주면 받아볼 수 있다.(사무국 T: 753-2277 F: 774-7118)

사대동창회

새해인사 나눠

師範大學同窓會(회장 閔丙畯)는 지난달 12일 조선호텔 카페로얄에서 同會 전임회장, 고문,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모임을 열었다.

모교출신 인재들 한의학도 변신

지난 1월 19일 발표한 95학년도 경희대 한의예과 합격자 중에는 모교를 졸업한 다양한 경력의 동문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중에는 학원강사를 하다 한의학에 심취해 지원한 鄭義東(89년 人文大卒·동양사학)동문과 金현동(90년 工大卒·산업공학)·金溶振(90년工大卒·재료공학)동문을 비롯,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대리로 근무중 사직한 崔光鎬(87년 社會大卒·사회복지학)동문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또한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다 한의사로의 전향에 성공한 趙三順(92년 藥大卒·약학)동문, 박사출신의 金在鉉(87년 工大卒·자원공학)동문등이 그동안 쌓은 화려한 경력을 미련없이 털고 새 출발을 하는 케이스다.

이렇듯 한의예과에 많이 지원한 것은 동양사상이나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일반직장보다 확실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지부는 지난달 11일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새해모임에 임원들 정성답지

대전·충남지부 이사회겸 신년회

大田·忠南支部同窓會(회장 吳熙弼)는 지난달 11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정기이사회를 겸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10여명의 이사 및 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시종 뜨거운 동문애와 모교애를 머금은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국민의례에 이어 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활동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피력한후, 신년에 새로 선임된 이사 및 간사들을 소개했다.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은 『대전·충남지부의 정기이사회 및 신년교례회 개최를 축하한다』고 말하고 모교 발전기금모금 캠페인에 대한 지부의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姜敏求(행대원동창회장)同會이사는 1백만원의 지부발전 성금을 출연, 대전, 충남지부의 활동을 격려했으며, 鄭부회장은 吳熙弼회장에게 본회 金在淳회장을 대신해 공로패를 증정하고, 1백만원의 지부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이사회 이후, 각 임원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마련된 신년교례회는 그동안 동문 상호간의 못다한 회포를 풀고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됐다.

姜來烈동문 신임회장에

마산지부 임원개선

馬山支部同窓會(회장 金炯英)는 작년 12월15일 마산소재 롯데크리스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개선을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무와 감사보고에 이어 모범동문에 대한 표창이 있었으며, 金炯英회장의 연임고사로 전형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에따라 전임 金회장의 후임으로 姜來烈(안과원장)동문이 신임회장에 선임됐으며, 부회장에는 李景宰, 金淳杰동문이 선임됐고 李 進, 金漢炅동문은 유임됐다. 또 총무에 尹德重동문, 감사에 李梓旭, 崔孝一동문이 선임됐다.

姜來烈신임회장은 『동창회의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을 당부했다.

金浩吉추모문집 증정

대구·경북 신년인사

大邱·慶北支部同窓會(회장 元虎出)는 지난 1월23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회장단과 관악회 회원등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元회장의 인사와 文海寧(대구시장), 沈宇永(경북지사)동문의 축사로 이어진 이날 모임에서 柳昌佑(영남대총장)동문은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즈음한 지역동문들의 새로운 각오와 역할을 기대한다』는 신년 메세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前포항공대 총장인 故 金浩吉동문의 추모문집이 발간돼 회장단에게 증정됐다.

명부발간·장학사업 벌이기로

3월중 정총개최 부천모임

富川支部同窓會(회장 姜豪錫·부일상호신용금고대표)는 지난 1월10일 부천시내 중동 숯불갈비집(朴敬浩신우섬유대표)에서 신년하례모임을 가졌다.

同會 金洛律명예회장을 비롯해 李弘來전임회장등 40여명의 동문이 참석, 鄭行元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신입회원 10여명이 함께 자리함으로써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만찬과 더불어 상호간 소개의 시간을 가졌으며 뛰어나 노래솜씨를 자랑하며 여흥을 즐겼다.

이날 모임에서 姜회장은 『그동안 신입회원 발굴에 미진했던 점이 송구스럽다』며 『95년에는 장학사업, 명부발간, 기금조성등에 힘써 타지부보다 활동적으로 동창회 활성화에 힘을 다하겠다』고 의욕에 찬 계획을 밝혔다. 또한 『3월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姜회장은 이날 모임에 1백만원과 옷솔 50개를 기증했으며 「富川支部報」제2호를 배부했다.

▲부천지부는 신년모임을 열고 「부천지부보」제2호를 배포했다.

미국 투산지부 창립

초대회장에 李洪錫동문

미국 아리조나주의 투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35명의 동문들은 작년 11월12일「투산지부동창회」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에 이홍석동문을 선임했다.

同會는 또한 부회장에 김성진동문, 고문에 이준상, 원성국동문, 총무에 민영기동문, 회계에 신용태동문을 각각 선임하고, 동문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교포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대부분 아리조나大 대학원에서 수학중인 同會회원들은 바쁜 중에도 이번 총회를 위해 동문명부를 발간, 배포했다. 〈燮〉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第203號

정치학과 임원개선
신임회장 金榮國교수

▲신임 金榮國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政治學科同窓會(회장 具平會)는 지난 1월 17일 인터콘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1백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정기총회겸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黃秀益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2월 개각으로 인해 국무총리와 노동부장관에 임명된 李洪九(同會 특별회원), 李炯九동문에게 축하 기념패를 전달했다.

94년 사업·결산보고에 이어 진 임원개선에서는 金榮國모교교수(本報 論說委員)가 신임회장에 선임됐다.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책을 맡아 기쁜 동시에 의무감이 크게 느껴지나 있는 힘을 다해 직책수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로 선임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 崔昌洛, 崔珏圭, 南時旭, 朴鍾圭, 高 建 ▲감사: 李圭澄, 葛天文 ▲총무: 金弘宇

법대12회 정총 盛了
金光鉉동문 새 회장

法大12同期會(회장 李康煥·생명보험회장)는 지난 12월12일 전경련회관에서 徐燉珏, 李漢基 前모교교수등 초청인사와 同期들이 참석한 가운데 94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칵테일 파티로 시작, 만찬과 여흥으로 오랜만에 同期들간 회포를 푼 이번 총회는 회장인사와 李漢基 前모교교수의 축사에 이어 기념품 증정과 회무보고가 있었다. 이후 참석 동문들은 94년도 결산과 9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이날의 주요안건인 임원개선을 했다.

이에 따라 金光鉉(장은신용카드사장)동문이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선임됐으며, 총무부회장에 印貞憲(변호사)동문, 재무부회장에 金光喜(동아증권사장)동문, 부회장에 金貞烈(능률협회상근부회장), 金泰祚(변호사), 金賢順(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孫洪鈞(서울신탁은행장), 宋允材(대한알루미늄회장), 李德求(수출보험감사)동문이 각각 선임됐다. 감사에는 金奎式(롯데제과사장), 車承轍(한외종합금융사장)동문이 선임됐다.

한편 매월 12일 정기모임을 가져온 同會는 회갑을 기념해 동문수상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재학중인 후배들에게 철재 사물보관함(1천만원 상당)을 설치해줄 계획도 갖고 있다.

정치학과 7동기회

政治學科7同期會(회장 李秀洪)는 지난 12월 21일 3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지난 5년간 同會 회장으로 애써온 李秀洪(한국문화협회장)동문 후임으로 金恩昊(前문공부차관)동문이 신임회장에 선임됐으며, 남은 임원들은 모두 유임됐다.

약대36동기회

藥大36同期會(회장 金相基)는 지난 12월10일 호암교수회관에서 「78학번 동기회」를 개최했다.

송년회를 겸한 이번 정기총회에는 94년도를 마감하는 임원개선이 있었으며, 3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金相基회장을 비롯 총무 印文敎동문, 감사 李龍熙동문이 유임됐다. 또한 同期會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회장제를 신설키로 하고, 초대 부회장에 許 燻, 孫麗源, 金桓默동문을 선임했다.

한편 同會는 오는 4월경 대전근교에서 가족을 동반한 동문야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약대38동기회

藥大38同期會(회장 徐種完)는 지난 12월4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만리장성」에서 졸업 10주년을 기념하는 동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10여명의 동기들은 오랜만에 만나 음식을 함께 들며 회포를 풀었고, 오는 3월8일 정기모임을 갖기로 결의했다.

약대17회
새 회장에 趙典勳동문

▲최근 동문이 경영하는 공장견학, 국내여행을 다녀왔다.

藥大17同期會(회장 權龍水)는 지난 12월3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임원개선을 위한 이번 총회에는 30여명의 동문이 참석, 신임회장에 趙典勳동문을 선임하고, 부회장에 金相年, 劉泰鉉, 趙榮衍동문, 총무에 金在坤동문, 감사에 朴瑞基, 權龍水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좋은 인연·따스한 사랑

몇 년이 지났을까?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들과의 결연사업을 벌인 적이 있다. 그때 계성제지의 崔洛喆회장도 참여하여 모교 법대 학우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주었다.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지금은 변호사(趙賢旭 87년 法大卒)가 되고 또 한사람은 사법연수원 수석졸업(盧誥煥 89년 法大卒)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이 그때 그 시절을 회고하여 적어보낸 글들 속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을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盧동문의 편지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제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학년에 재학중이던 1985년 2학기 당시 裵載湜학장님의 추천으로 崔회장님과 결연장학생으로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인연이 벌써 10년의 세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89년 졸업할 때까지 회장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은 저에게 경제적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든든한 지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항상 저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분에게 저는 아버지로부터 느끼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고 저의 뒤에는 항상 든든한 빽이 있다는 자부심으로 더욱더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받은 따뜻한 사랑을 훗날 저의 후배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또한 그 사랑을 보답하는 길은 이 사회에 봉사하는 삶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젠 한사람의 사회인으로서 각자의 몫을 다하고 있는 이들이 그때의 그 따뜻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는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사랑이 싹틀 수 있음을 기대해 본다.

(泳)

亥는 核心의 核?

〈李揆行·문화일보회장〉

乙亥年이 돼지해라서 그런지 돼지저금통이 많이 팔린다고 한다. 돼지꿈을 복꿈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과 돼지저금통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을성 싶다.

그런데 복에는 으레 壽가 따르는 법이다. 옛 말엔 壽則多辱이라고 해서 오래 살다보면 욕된 꼴을 많이 보게 된다고도 했지만 사람이란 그 본성과 본능으로 오래 살기를 바란다. 그러기에 오래살지 못하면 진정한 복이랄 수 없다는게 옛부터의 우리네 생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돼지와 돼지꿈이 상징하는 복에 대해서 고개가 갸웃해진다. 상식적으로 말할 때 壽에 관한한 돼지의 수명을 長壽의 반열에 올려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돼지의 수명을 묻는 질문의 정답은 「도살장에 가는 날」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돼지와 돼지꿈을 福의 상징으로 여기는 우리 풍속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어찌 되었건 한 밑천 잡자는 한탕주의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 1백% 그렇다고 긍정하기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돼지저금통에 꼬박꼬박 저금하는 어린이들의 꿈은 아무리 생각해도 한탕주의와 거리가 멀다. 돼지꿈이 결코 한탕주의와 연관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돼지가 長壽동물이면서 福을 상징한다는 입증을 필요로 한다.

옛 기록에 보면 春秋시대 燕나라의 昭王에게 1백20살된 돼지가 진상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는 돼지나이가 과장되었다고 일소해 버리기 보다는 돼지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본보기로 봐야 할 것 같다. 하긴 우리 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家」라는 글자만 하더라도 집(宀)안에 돼지(豕)가 있는 會意문자이다. 이것은 결국 돼지가 집안의 福과 관련된 핵심임을 말해 준다.

돼지해를 뜻하는 亥라는 글자는 核心의 核과 同義로 풀이된다. 그런데 核은 돌발성과 폭발성을 상징하는 글자이다. 그런 뜻에서 亥年에는 예상치 못한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염려가 크다는게 先賢들의 풀이이기도 하다.

用의 無用?,乾爲天

〈鄭東哲·신경정신과의원장〉

지난해 구정을 조금지나 우연히 토정비결을 봤다. 강연을 하는 동안 고객을 위해 서비스한다는 컴퓨터 토정비결을 봐준 것이다.

일년 열두달이 특유의 漢詩같은 얘기로 컴퓨터에 의해 한글화되니 뜻도 아리송하지만 매우 어설펐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자식을 볼 운세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동지달엔 횡재할 수, 귀인을 만날거라고도 했다. 웃었다. 기분나쁠 일도 아니라 피식 웃었을 뿐이다. 좌우간 乾爲天 정도는 아니라도 대체로 좋다는 얘기들이었다.

나는 돼지띠다. 그것도 생일이 流頭날이라 늘 어머니께선 말씀하시곤 했다. 오뉴월 돼지팔자라 좋다는 것이다. 그 「좋다」라는 얘기는 해마다 어린 마음에 야릇한 파문을 던지곤 했다. 잣불을 켜들고 활활 타면 대성할 거라고 좋다고 했고, 불길은 크지 않아도 오래가면 그 해는 또 끈기로 해서 좋다고 했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였다. 역시 팔자가 활짝 피게 되어 있었다. 토정비결은 그랬다. 한참 복중엔 더 없이 금의환향할 운세였다. 먹을 것은 지천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된다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나는 그해 여름 난생 처음 농촌으로 피신하여 물지게며, 나무를 하느라 산마루를 바들바들 떨며 내려오곤 했다. 배를 곯아 그 무슨 각시방이라며 동요같은 가사가 붙은 풀로 연명을 해야할 형편이었다. 전쟁이 난 것이다. 좋다는 토정비결이라니? 그래서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점이라든가, 무슨 운세같은 것을 싫어한다.

미워할 정도로 상이 찌푸려져 유수한 신문에 그런 것들이 나면 그 신문마저 보기가 싫을 정도다. 나에겐 쓸데없는 낭비로 밖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94년 11월 나는 어이없게도 큰 돈은 아니지만 믿는 나무에 부도를 당했다.

사람이기에 난감할 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양갈래의 마음중 뭔가를 택일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할 때, 이른바 周易은 자신의 마음속에 건재한 진정한 향방을 일러주고 그로부터 매진하여 결실을 보게하는 경우가 있다. 나에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으니 점따위를 「無用의 用」이 아니라 「用의 無用」이라 할밖에.

돼지띠 동문들 주제 운수

할머니는 道士

〈林榮俊·상지대교수〉

우리 집은 자손이 귀한 편이었다. 아버님의 형제중에서 숙부님만 생존해 계셨으며 나 또한 어려서 혼자가 되는 바람에 일찌기 長孫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할머님은 나에 대하여 남다른 걱정과 아울러 지극한 과잉보호(?)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면 호기심 많던 어린 시절 내가 밖에 나가는 것을 꽤나 말리곤 하셨으니 말이다.

지금부터 삼십사오년전이니까 아마도 중학시절이라고 기억되는데 당시에 나는 다른 아이에 비해 조숙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새해 벽두에 하루는 할머님께서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다. 올해에는 운수가 좋지않다고 하니 물가(水邊)를 피하되 특히 북동쪽으로는 절대로 가지말라는 간곡한 당부말씀이었다. 그 당시 나는 그 말씀을 어른들의 흔한 걱정이려니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흘려버렸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을 맞아 숙부님을 따라 시오리쯤 떨어진 저수지로 낚시질을 가게 되었다. 그 저수지는 면적도 넓고 수심도 깊어 인근에서는 제법 낚시꾼이 많이 몰리는 곳이었다.

나는 숙부님곁에서 숨을 죽이며 한참동안 미끼를 바꾸며 낚시질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별로 잡히는 것같지 않았다. 그런데다 삼복더위가 푹푹찌는 여름철이라 무더운 날씨에 물끄러미 지켜보는 내가 안쓰럽게 생각되셨는지 보트나 타자고 하셨다. 나는 그 때까지 보트를 타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호기심도 생겼고 심심하기도해 태워달라고 했다. 난생 처음으로 보트를 탄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다.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으나 시원한 물에 마음이 끌려 손에 물을 적시려고 몸을 기울이자 보트가 중심을 잃고 기우뚱하면서 전복될뻔한 일이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머님이 새해초에 운수 점을 보셨다는 것이다.

나는 꿈, 점이나 토정비결은 믿지 않지만 그 후부터는 어른들의 말씀을 거역하기 전에 한번쯤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복돼지같은 동문들

〈全英淑·모교박사과정〉

그때는 꿈을 참 많이 꾸었다.

뭔가 불확실하고 답답해서 그랬나 보다.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KAIST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 때 실험실에서의 생활은 내 학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실험실의 프로젝트 연구에 월급받으면서 헌신하는 프로 연구원의 의식도 없었다. 한편으로 나이가 다 차서 시집가라는 집안의 성화도 있었지만 나도 어느 정도 나의 불확실한 생활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새로운 돌출구를 갈구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인지 몇 일 건너 한번씩은 「무슨 뜻일까?」하며 나름대로 애써 해몽할만한 꿈을 꾸곤 했다.

보통의 꿈들과 같이 그 꿈은 구름안개속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넓고 안락한 내 침대위에 나는 너무나 편안히 누워있었다. 그리고 내 침대 밑에서는 복스럽고 하얀 돼지 떼가 지나가고 있었다. 대여섯 혹은 여남은 마리의 돼지가 아니고 아직은 덜 자라서 어린아이의 분홍색 살갗을 지닌 듯한 돼지가 족히 몇 백마리는 되는것 같았다. 나는 정신이 있는듯 없는듯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돼지가 떼를 지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워 하거나 혹은 비일상적인 동물에 대해 혐오하는 기색이나 기분은 전혀 없었다. 수백마리의 돼지들은 순했고 그중 한 마리도 튀어나지 않고 둥글둥글하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투명하기까지 했다. 또 침대에 누워있는 나의 너무 편안하고 마음속 깊이 잠재된 태평함이 그 돼지떼와 같은 설명하기 힘든 투명성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몽실몽실한 돼지떼는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는데 모두 동그란 등만 보일 뿐 어느 한 마리도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천천히 지붕및 처마끝에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빗물에 내 이불과 침대시트가 젖어 들기 시작하자 나는 놀라 움츠리기 시작하면서 그 끝없는 평온함이 깨지고 말았다.

그 후에 나는 곧 결혼을 하게 됐다. 지금의 남편은 서울대 동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내 친정 어머니는 그때 내 돼지꿈에 출현해서 침대 밑을 지나간 수백마리의 돼지떼가 서울대 졸업생들이라고 해몽했다.

느티나무광장

先進韓國은 가능한가

〈丘月煥·연합통신지방국장〉

우리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국가목표로 추구한지도 꽤 오래 됐다. 60, 70년대 개발지상시대의 성장으로 얻게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도 이대로 가면 곧 선진국이 된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그래서 국가경영목표로 선진조국의 창조라는 말도 생겨났고 올림픽 개최가 바로 선진국 진입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꿈도 가져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한국은 신기루처럼 잡힐 듯 말 듯한 상태에 있다.

이미 지금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세계화란 말도 선진국 진입을 빨리 앞당기자는 의도에서 나온 슬로건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세계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 세계 일류국가가 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에 터지는 충격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게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盜稅사건만 해도 그렇다.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통째로 잘라먹은 그 사람들의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구청의 일개 말단관리가 수억, 수십억을 삼킬 수 있었다니 그런 사람의 肝은 얼마나 클까 한번 보고싶은 생각도 든다. 그런 일이 관청의 하부조직에서 장기간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위에서는 몰랐다니 그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아마도 상하좌우가 부정한 기브 앤드 테이크의 거래속에서 공생했을 것이다. 국가자원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고 공무가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구조속에서 과연 국가경쟁력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연예계 비리사건만 해도 그렇다. 노래 잘하는 가수, 연기 잘하는 탤런트보다 뇌물을 잘 쓰는 가수와 탤런트가 더 빛을 보았다니 이런 구조속에서는 능력경쟁이 아니라 뇌물경쟁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떠도는 얘기들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흡사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가 굴러가는 꼴을 보는 것 처럼 걱정스럽다. 어느 사회든지 그러한 裏面이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정도에 있어서도 너무 지나치고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갈수록 조직화, 구조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때문이다.

또한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생생한 지존파 일당의 살인만행이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대소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지 않을 수 없는 갖가지 실망들은 우리가 아직도 선진국까지의 이정표에서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음을 느끼게 한다.

〈本報 論說委員〉

동문수필

나의 독서법

〈金埈成·대우그룹회장〉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할아버지는 교회 가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에 열심인 할머니를 못마땅해 하기까지 했다. 할머니는 목사나 장로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질 수가 없었다. 그녀는 틈만 있으면 영감을 설득하려 들었다. 게으른 영감은 『임자가 그 목사나 장로의 말을 나에게 전해주면 될 것 아니여…』했다. 할머니는 막상 그들의 말을 옮겨보려 했으나 어떻게 된 셈인지 한 마디도 옮길 수가 없었다. 영감은 『임자 괜히 교회에 낮잠 자러 가는 것 아니냐』하고 핀잔을 주었다. 그럴수록 할머니는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갔고 목사와 장로의 설교를 한마디라도 빠뜨릴세라 귀에 담았다. 그날은 더 열심히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들어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그들의 설교를 영감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막상 영감을 대하니 한 마디도 옮기지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이튿날 할머니는 장로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도 몸도 씻기는 기분인데 집에 돌아가서 영감에게 그 말을 옮기려고 하면 한 마디도 말을 할 수 없으니 어찌 된 노릇입니까요』

옆에 있던 장로가 할머니의 말에 빙그레 웃었다.

『할머님, 믿음이란 콩나물에 물주기와 같은 것이랍니다. 콩나물 동이에 물을 줘보세요. 물은 위에서 곧바로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콩나물은 자라는 거지요. 목사님의 말씀이 할머님의 이 쪽 귀에서 저 쪽 귀로 빠져나가버려도 할머님의 신앙심은 콩나물 자라듯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소설 속에 늘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주제를 즐겨 다룬다.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려면 철학에 관한 소양이 필요하다. 철학에 관한 소양은 철학책을 읽음으로써 얻어질 수 밖에 없다. 존재론적인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반드시 작가가 철학을 전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물을 깊이있게 관찰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소설의 문장도 마찬가지다. 지적인 자극을 주는 언어를 골라 쓰려면 지적안 사고가 필요하고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에 철학하는 마음, 존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독서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나는 책상 옆에 철학이나 문학 서적을 두고 집필 중에도 간간이 읽어가는 것이 습관으로 돼 있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타자와의 언어」일 때도 있고 이정호 교수의 「英美詩의 포스트모던적 읽기」일 때도 있다. 오오에씨의 「개인적인 체험」은 중편을 쓰는 동안에 다 읽었다. 소설을 쓰면서 철학서적을 가까이 하는 것은 특정 철학을 소설의 주제로 삼자는 의도는 아니다. 콩나물에 물 주듯, 목사의 설교가 노파의 귀를 살찌우듯 소설을 써내려가는 내 의식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독서에 의해 내 사고가 철학적인 분위기에 빠져들 때 내 붓끝도 더 살아남을 느낀다.

〈本會 顧問〉

신천지

환상의 섬 「보라카이」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자

여행인원과 경비와의 함수관계

일반적인 여행상품은 15명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그 이유는 항공료와 현지경비의 단체할인이 15명을 기준할 때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비는 다소 내려가게 된다. 특히 항공사 규정 및 여행업계 관례상 손님을 모시고 출국하면 여행사 ESCORTER는 그 비용을 면제해주는데(FREE OF CHARGE: FOC)이것의 최저기준이 15명 이상이며 관광객 수가 그 이하일 경우 부분적으로 발생된 ESCORTER경비를 손님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행상품의 가격구성

쾌적하고 만족한 여행을 원한다면 고가의 상품이나 주문상품을 택하고 다소 불편을 감수한다면 경제적인 저가상품(주로 30~50명 기준)에 참여하면 된다.

통상의 관광상품에서 가격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1)항공요금: 50%

2)지상비(HOTEL, 식사, 관광, 교통, 기타): 30~40%

3)수수료(VISA FEE, 공항세, 보험료, 기타): 10~20%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경제적이면서도 즐겁고 유쾌한 여행을 하는 방법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몰리는 성수기를 피해 여행한다면 모르긴해도 제법 쾌적하고 경제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환상의 섬 보라카이(BORACAY)

『申회장, 가까우면서 며칠 푹 쉬고 올 수 있는 좋은 곳 좀 소개시켜주시오』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서슴없이 권하는 곳이 바로 필리핀의 보라카이섬이다.

이 섬은 내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제2의 고향이라할 만큼 나를 위시해 그 곳을 단 한번이라도 방문했던 사람이라면 평생 가슴속에 남아있는 환상의 섬이다.

파나이섬 북서쪽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 보라카이.

투명하고 맑은 에메랄드빛 물결과 해변은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약 7㎞에 달하는 백사장에는 짙은 초록의 야자수들이 늘어서 있고, 그 아래로는 아담한 초가집들이 아기자기하게 모여있다. 해변을 따라 늘어선 수많은 방갈로와 레스토랑은 물론 관광객들이 충분히 즐길수 있을 만큼의 해양스포츠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세계3대 해변중의 하나인 보라카이는 휴양지로서의 조건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어 1년내내 성수기이며 특히 12월과 1월 사이에는 유럽인들로 가득하다.

보라카이까지는 마닐라에서 하루 3편씩 있는 깔리보행 국내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깔리보공항은 얼핏 우리의 시골역사를 연상케할 정도로 자그마한 공항으로 여기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30분이면 까티클란에 닿는다.

까티클란으로 가는 도중 차장밖으로 펼쳐진 필리핀 전형의 농가, 조그마한 소도읍, 요란한 치장의 지프니, 남지나해의 시원한 바닷가와 야자수 숲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버스는 선착장에 도착한다.

「방카」라고 하는 필리핀 전통목선을 타고 파도를 헤치며 20분정도 가면 바로 그 유명한 백사장(WHITE SAND BEACH)에 닿는다. 늘어진 야자수 밑에 눈처럼 흰 백사장, 투명한 바닷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세파에 찌든 몸과 마음은 어느새 새로운 활력으로 넘치게 된다.

보라카이섬에는 「ROLENZO」, 「PARADISE GARDEN」등의 몇몇 호텔이 있으며 파란 잔디위에 야자잎 지붕을 씌운 건물은 보기만해도 영화속의 주인공인양 착각하게 하며 순박하고 착한 필리핀 현지인들의 서비스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특히 일몰이 시작되는 해변에서 노천식당의 부페와 SAN MIGUEL맥주 한 병을 놓고 바라보는 석양의 노을빛은 끝없는 꿈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필리핀 목선을 빌려타고 바다에서 즐기는 스노클링, 낚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코스이며 필리핀 특유의 2인용 요트를 타고 파도를 가르면 또 다른 천국을 맛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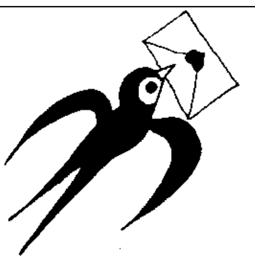
여행경비는 여행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통상 65만원에서부터 75만원까지이고, 이 요금의 차이는 성수기, 비수기, 호텔, 식사 등에 따라 요금이 변동된다.

복장은 우리나라의 한여름, 수영복과 썬크림, 비치가운, 모자등을 준비하면 되고 한가지 주의할 것은 오염이 되지 않은 곳이다보니 30분만 노출돼도 살이 익을 정도로 투명한 햇살을 고려해 무리한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얀 백사장에서의 선탠과 투명함의 극치에 달한 바다에서 스노클링, 낚시를 하노라면 천국이 따로 있나? 바로 이 순간이 천국이지!

〈申榮九·거림항공여행사 회장〉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요즘 이렇게 지냅니다

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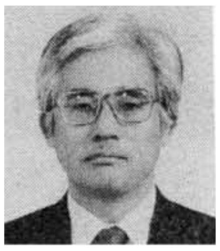
▲尹鍾林(57년 文理大卒·홍익대교수·本會理事)=허균문학회로부터 「허균문학상」(시부문 본상)을 수상.

▲金容善(57년 師大卒·전남대교수)=작년 11월10일에 성옥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성옥문화상(교육부문대상)을 받았다.

▲任德淳(62년 師大卒·충북대교수·本會理事)=최근 제1회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상(인문사회과학분야)을 수상.

▲金正吉(62년 音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지난달 14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당에서 한국관악협회로부터 제4회 관악상을 받았다.

▲元佑鉉(65년 法大卒·고려대언론대학원장·本會理事)=지난 12월28일 대한상의에서 한국PR협회로부터 「올해의 한국PR상」을 받았다.



▲具聖會(69년 保大院卒·서울보건전문대교수·本會理事)=최근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가 선정한 제18회 보건대상(공로부문)을 수상했다.

행사·출간

▲尹宗鉉(46년 商大卒·평화문화연구원장·本會理事)=언론·문화자료실인 同연구원이 영등포구 여의도동 라이프 콤비빌딩으로 확장·이전했다.

▲邊衡尹(51년 商大卒·모교명예교수·本會理事)=지난달 19일 大韓商議에서 「한국의 산업발전과 재벌」이란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具平會(51년 文理大卒·무역협회장·本會副會長)=1월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朴健雨신임駐美대사를 초청, 오찬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건회장·本會理事)=지난달 3일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출연.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이사장)=1월27일 하얏트호텔에서 「세계화와 외교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孔魯明외무장관 초청 조찬회를 개최.

▲丁澈錫(55년 法大卒·前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本會理事)=최근 부총리 재임시절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주요정책보고와 강연자료를 모아 「한국경제의 새 진로」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다.

▲崔浩中(56년 文理大卒·세종연구소이사·本會理事)=지난달 22일부터 5일간 대만에서 열린 「세계자유의 날」 행사와 「세계 및 아·태자유민주연맹 공동집행위원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愼鏞來(56년 師大卒·경남중등교육국장·本會理事)=작년 11월28일부터 12일간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12월에는 대한교원공제회 시도지부장회의에 참석.

▲鄭昌柱(57년 農大卒·모교농생대학장·本會理事)=지난달 19, 20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농업발전과 농학계대학의 개편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

▲金明浩(57년 商大卒·한국은행총재·本會理事)=국제결제은행(BIS)의 특별초청을 받아 1월9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중앙은행총재 특별회의에 참석.

▲鄭良謨(58년 文理大卒·국립중앙박물관장·本會理事)=지난달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화실에서 「1월의 문화인물 姜世晃展」을 개최.

▲金昌悅(58년 法大卒·방송위원회위원장·本報論說委員)=12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광고분야 방송심의규정 설명회」를 개최.

▲李時潤(58년 法大卒·감사원장·本會理事)=1월6일 李會昌前원장(15대)을 비롯한 역대 감사원장 7명을 감사원 삼청실로 초청, 신년하례식을 갖고 감사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金貞姬(61년 藥大卒·시인)=최근 8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후 발표한 시들을 모아 시집 「사계」를 출간했다.

▲李台燮(62년 工大卒·라이온스협회 국제이사·前과기처장관)=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라이온스협회 집행위원회의에 참석.

▲柳世熙(62년 文理大卒·한국정치학회장·本會理事)=지난달 1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세계화와 한국정치」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

▲韓和甲(63년 文理大卒·국회의원·本會理事)=1월7일 광주은행 본점 9층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 전남지역 발전연구회 세미나에 참석, 「세계화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

▲金玉照(63년 法大卒·한국언론연구원장·本會理事)=1월11일 한국프레스센터 12층 회의실에서 신문기사의 저작권 간담회를 개최.

▲郭秀一(63년 商大卒·모교교수·本會副會長)=지난달 14일 고당기념관에서 고당기념사업회 초청으로 「우리 경제의 세계화와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강연.

▲鄭玩鎬(63년 師大卒·한국교원대교수·本會理事)=1월27일, 28일 양일간 한국교원대학교 연수원강당에서 「세계화에 대비한 과학교육의 방안」이란 주제로 과학교육심포지엄을 개최.

▲李鍾律(64년 文理大卒·국회사무총장·本會理事)=지난달 12일 신라호텔 오키드룸에서 장춘로터리클럽 초청으로 「세계화와 한국정치」란 제목으로 강연.

▲姜喆善(65년 司大院卒·국회의원·本會理事)=1월12일 멕시코 아카폴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의회협의회(APPF)에 참석.

▲金安濟(65년 行大院卒·모교교수·本會理事)=1월12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초청으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

▲金泰弘(66년 文理大卒·前기자협회장)=1월14일 광주 북구 중흥동 297의 57 도원빌딩 3층에서 지방문화연구소 개소식을 가졌다.

▲崔昌潤(66년 文理大卒·국제교류재단이사장·本會理事)=지난달 17일 힐튼호텔에서 폴 월포위츠 존스홉킨스大 국제관계대학장 방한기념 오찬모임을 가졌다.

▲朴有光(66년 法大卒·한국고속철도공단이사장·本會理事)=지난달 10일 프랑스 파리상주사무소 개소식을 주관하고 TGV제작현장을 시찰.

▲崔柄憲(67년 文理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최근 대한불교진흥원 주최 제46회 다보문화강좌에서 「唐에 있어서의 신라승의 활동」이란 주제로 특강.

▲李永熙(69년 法大卒·인하대법정대학장·本會理事)=1월1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지방자치단체선거와 정치개혁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曺圭一(70년 行大院卒·前농림수산부차관)=지난 12월27일부터 4일간 충북 중원에서 농촌청소년 4백명이 참가한 문화탐방활동을 겸한 동계야영대회를 개최.

▲郭贊浩(71년 新大院卒·평통자문회의 사무국장·本會理事)=지난 12월27일부터 싱가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

▲鄭夢準(75년 商大卒·대한축구협회장·국회의원)=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대륙간축구챔피언대회에 참석.

〈15면에 계속〉

瑞岩學術獎學財團 외국유학생 지원 계획

本會부회장으로 동창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瑞岩學術獎學財團의 尹世榮이사장(SBS회장)은 외국유학생의 국내유학을 지원하는 瑞岩 Scholarship(가칭)을 신설, 저개발 국가의 우수한 인재에게 장학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장학사업, 국내 석·박사지원사업, 교수 및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사업, 도서지원사업등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同會는 금년도 예산을 총 12억6천만원으로 책정, 2백30여명과 20여단체에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同會의 임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사: 李壽成, 徐基源, 徐正宇, 鄭根謨

△감사: 扈英珍, 李德柱

「영원한 제국」의 저자 이화여대 전임강사로

베스트셀러 소설 「영원한 제국」,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의 저자 이인화(본명 柳哲均)동문이 지난해 이화여대 교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국문과 전임강사로 추천돼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문예창작론을 강의하게 됐다.

李동문은 89년 모교 인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금년 2월 同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崔喜準동문 데뷔35주년 기념콘서트

「진고개 신사」,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등으로 잘 알려진 가수 崔喜準(본명 崔成俊·59년 法大卒)동문이 데뷔 35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7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대형 콘서트를 가졌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하루 7시간씩 맹연습을 했다는 崔동문은 21년만에 발표한 35주년 기념앨범에 들어있는 10여곡의 노래와 재즈풍으로 재편곡한 「하숙생」을 비롯 「맨발의 청춘」, 「빛과 그림자」등을 불렀으며, 후배가수들과 함께 팝송도 선보였다.

崔동문은 『올해는 소극장 무대에서라도 팬들과 자주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시풍속

달이 유달리 크게 보여 대보름

오곡밥, 부럼 깨물기 선조 지혜 담겨

세시풍속은 1년중 철 따라 때에 따라 행해지는 풍속들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조 正祖 때 洪錫謨의 「東國歲時記」, 金邁淳의 「洌陽歲時記」, 柳得恭의 「京都雜志」와 丁學游의 「農家月令歌」에 그 상세한 내용과 吟詠이 들어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라진 것도 많고 하여, 그 중에서 특별히 歲首에 유념해야 할 몇가지를 오늘의 실정에 맞춰 언급하려 한다.

〔묵은 세배〕

음력 섣달 그믐에 밤 이슥한 때 집안이나 이웃 어른께 묵은 세배를 올린다. 지난 한해 동안을 회고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뜰 때, 절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밤이 아니고 낮에 드릴 수도 있는데, 헤어질 때 절을 올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눈썹이 센다는 이야기〕

섣달 그믐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했다. 이것은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집안 식구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 談笑도 하면서 다음날 茶禮(차례)준비도 하느라 바빠, 거의 잠을 잘 형편이 못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 하겠다. 남자들은 사랑에서 밤껍질을 벗겨 生栗을 치고, 여러가지 祭需의 곰새를 하며, 여자들은 안채에서 茶食을 박으며, 부침개질, 나물볶기, 가래떡 밀기, 골무떡, 인절미 만들기등 설 준비에 여념이 없어 자연 밤 이슥할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기도 하다.

▲동채싸움:경북 안동에서 정월 보름에 행했던 놀이로 「동태싸움」 또는 「차전」이라고 한다.

미리미리 설빔이며 음식, 제수 준비를 하면 그믐날 그렇게 법석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들 화기애애하게 모여 화목을 다져가던 그 시절 풍습이 그립기만 하다.

〔세배〕

초하룻날 집집마다 茶禮를 지내면, 우선 집안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이웃 어른께가 세배를 드린다. 요새는 절을 받을 어른에게 『앉으세요!』하고 절을 하면서 『새해에 福 많이 받으세요!』한다. 자세를 가다듬어 세배를 드리면 자연히 앉아서 받을 것이고, 祝願이나 德談은 절을 받은 어른이 내리는 것인데 위아래가 뒤바뀐 느낌이 간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신하게 절을 하고 일어났다 앉아서 어른의 말씀을 듣도록 할 것이다.

남자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 두 손을 八字로 벌리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뻗치고 꾸벅하고는 주저물러 앉기가 일쑤다. 두 손 끝을 얌전히 마주 모으고 발바닥이 위로 가게 젖히고 엉덩이를 낮출 것이다.

간혹 두루마기에 목도리를 한 채 절을 하는 예를 보는데, 방에서는 목도리를 풀어서 얌전히 개 놓아야 한다.

〔윷놀이〕

말판은 正面에 도·개·걸·윷 또는 一二三四를 달아 놓고, 네 귀로 돌아가며 入(房 간다), 拱(꽂는다), 裂(짼다), 出(낸다), 중앙에 房을 제격으로 표시해 그려 넣고, 편을 짜 합의된 규칙에 맞춰 말을 쓸 것이다.

〔대보름〕

정월 초하루를 元日 또는 元旦이라 하는데, 全州李씨는 太祖大王의 諱(휘)가 旦임을 꺼려 元朝라고 쓴다. 정월 보름달이 유달리 크게 보인다는 뜻에서 대보름이라 하고, 上元이라고도 하며, 음력 8월 보름 곧 秋夕을 中元이라고 한다.

대보름날 새벽에 귀밝이술(耳明酒)을 먹고, 호두·밤·잣 같은 堅果類를 깨무는데, 그리하면 1년내 부스럼을 안 앓는다 하여 부럼이라고 한다.

정월 초하룻날부터 띄우던 연은 이날 모든 厄을 다 실어 높이높이 떠올려 줄을 끊어 띄워 버리는데, 이것을 액막이연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녀자들이 정초부터 뛰던 널도 이 날을 기해 마감한다.

대보름날 저녁 이른 때 오곡밥에 묵은 나물을 볶아 먹는다. 조짚에 싸리를 섞어 홰(炬)를 만들고 칡으로 애들의 나이 수대로 마디를 지어 매고, 끝에 북더기 등 불이 잘 당겨지는 것을 달아매고, 달이 떠 오를 때 불을 붙여 당사자가 달을 향해 끝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허리를 굽히면서 『정월 대보름날 달마중이오!』하고 끝 맺기가 탈 때까지 몇 번이고 절을 한다. 이때 논두렁 밭두렁 잔디에 불을 놓는데 이를 쥐불놓이라고 한다. 요새는 산불의 위험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예전에는 편을 갈라 石戰도 했으나 지금은 없어졌고, 지방에 따라 줄다리기, 車戰놀이를 하고, 다리 밟기, 塔돌이, 강강수월래춤 등을 추고 있다.

〈李應百·명예교수〉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第203號

화제의 동문

「장미빛 인생」 金弘準감독

인류학과 나와 메가폰 잡아

『영화 감독이란게 별난 직업인가요?』

어느 한 순간에도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별난 길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金弘準감독. 바로 金감독이 우리가 만난 별난 동창이다.

75년 모교 인류학과에 입학, 81년 졸업후 도미, 박사학위를 눈앞에 두고 金동문은 자신의 길에 수정을 가했다.

『제가 판단한 것이죠. 그땐 공부가 너무 지겨웠어요. 그래서 본래 흥미를 갖고 있었던 영화로 뛰어들었죠』

재학시절 「얄라셩」이라는 영화써클에서 8㎜영화를 만들었었다. 그러나 그땐 전문적인 영화인으로서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다. 단지 우리 자신의 고민을 좀더 많은 이들에게 선보이고 공감하고 싶을 따름이었다.

이러한 그의 소박한 꿈은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 영화인으로서 조금이나마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장미빛 인생」이요? 저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영화예요. 90년대를 모르면서 80년대를 다루었기 때문에 미완성인 셈이죠』

항상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필름에 담고 싶다는 그의 꿈은 이제 막 형상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분야에 있는 동문들과도 두루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정계·재계에 주축을 이루는 서울대인들에게 영화산업의 어려움을 이해시키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요』

영화인으로서 그는 우리나라 영화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영화는 영상매체에 종속되어 있는 한 분야가 아니라 가장 먼저 개발되고 육성되어야 하는 기초과학인 것을 강조했다.

『전공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야, 어떤 일을 하든 전공은 바탕이 되는 것이니까요. 글쎄요.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신의 길에 한 치의 후회도, 미련도 없다는 그는 다음번에 어떤 작품을 선보일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다음번 작품에는 90년대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인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요. 어려운 영화는 싫구요.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영화도 싫구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전문 영화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다는 金弘準동문. 그에게 왜 인류학 박사학위를 포기했느냐 하는 질문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泳)

『그땐 공부가 너무 지겨웠어요. 그래서 본래 흥미를 갖고 있었던 영화로 뛰어들었죠』

빛의 예술가 洪淳泰동문

개인사진전 21회 활력과시

『남북통일이 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가보는게 마지막 꿈이죠』

『부잣집 맏아들로 그냥 자랐으면 아마 사람구실도 못했을 겁니다. 17살때 길거리에서 학도병으로 끌려가 죽을 고생을 했죠. 30㎏이 넘는 중장비를 들고 열대지역의 오지를 다녀도 끄떡없는건 그 때 칼날같은 정신력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단단한 체구때문인지 환갑의 나이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 洪淳泰동문은 35년간 사진기만 들고 국내는 물론 아프리카, 중남미등 1백여개국을 넘나들며 10여권의 저서를 출간하고, 유일무이하게 21번의 개인전 경력을 가진 부지런한 사진작가다.

『걸프전때는 물론 지표면 온도가 70℃가 넘는 곳도 다녔습니다. 남북통일이 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가보는게 마지막 꿈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티벳입니다. 입국절차가 무척 까다로와서 네팔 카투만두로 들어가 1천5백20m의 히말라야 경계를 넘어 최초로 티벳의 秘境을 촬영했습니다. 들소인 야크에 접근해서 사진을 찍다가 큰 상처를 입은 적도 있어요. 집사람이 못알아볼 정도였지요. 하지만 끝까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발로 뛰는 노력과 서슬이 퍼런 정신력이 이입됐기 때문인지 전문가들은 洪동문의 작품을 「힘」의 예술이라고 평한다. 국전초대작가, 86아시안게임·88올림픽 공식기록사진가, 한국민족사진가협회장등 화려한 그의 이력만큼 사진예술계의 최고로 인정받는 洪동문은 사실 처음엔 사진을 단순한 취미로 생각했다.

제대후 서울중학교로 복학하려는 계획이 무산돼, 할 수 없이 경기상고(현 서울상고)에 들어가 상경계통의 공부를 하게 됐고 이런 이유로 원래 공대에 뜻이 있었지만 상대에 입학, 60년에 졸업했다.

『졸업후 전공도 살리고 고등학교때부터 전문서적을 탐독하며 관심있어 하던 사진에 대한 취미도 살릴 수 있을 것같아 교직을 택했죠. 지금 생각하면 모든게 운명의 장난인 것 같아요』

3년반동안 농구감독을 맡아 고교청룡기 감독상을 받기도 했다. 함께 뛰는 패기에 넘친 인텔리 총각선생님이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 진짜 운명때문인지 몸담고 있던 학교의 교장이 모두 사진광이거나 미술인이었던 덕에 이때부터 洪동문은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사진을 취미가 아닌 인생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요즘은 동양문화의 원류를 찾아다닙니다. 실크로드도 다시 가야하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히말라야의 무스탄왕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洪동문이 가야할 곳, 만나야 할 사람은 아직도 끝이 없는 모양이다. 〈志〉

〈14면에 이어〉

이동·선임

▲洪承稷(49년 師大卒·아세아연구소이사장·本會理事)＝작년 8월에 고려대를 정년퇴임하면서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金始中(55년 文理大卒·前과기처장관·本會理事)＝최근 고려대 화학과교수로 위촉.

▲李御寧(56년 文理大卒·前문화부장관·本會理事)＝최근 이화여대 국문과 석학교수로 위촉됐다.

▲朴鉉兌(56년 法大卒·수원대 정경대학장)＝12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省谷언론문화재단의 省友會 총회에서 회장에 유임됐다.

▲李正勳(57년 文理大卒·매일신문 논설주간·本會理事)＝한국신문편집인협회 이사에 선임.

▲金太智(57년 法大卒·駐독일대사)＝지난달 20일 駐日대사에 임명됐다.

▲吳德均(57년 商大卒·대전엑스포 기념재단 이사장·本會理事)＝지난달 3일 대전엑스포 기념재단 이사장에 취임.

▲南時旭(58년 文理大卒·동아일보상무·本會理事)＝지난달 20일 열린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임.

▲孫溁鎬(59년 文理大卒·前KBS부사장·本會理事)＝최근 우방건설 사장에 영입됐다.

▲李文熙(59년 文理大卒·한국일보편집인·本會理事)＝한국신문편집인협회 부회장에 선임.

▲朴鍾世(59년 師大卒·코래드 부회장·本會理事)＝옥외광고가 주종목인 광고사 아시아컴의 회장에 취임.
(T:719－9582~3)

▲金東春(59년 藥大卒·前대원제약사장·本會理事)＝지난달 5일 同社 부회장으로 승진.

▲安啓春(61년 文理大卒·연세대교수)＝지난달 16일 한국사회학회 정총에서 학회장에 취임. 安동문은 10일 한국카톨릭교수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朴健雨(61년 法大卒·외무부차관)＝지난달 17일 駐美대사로 임명됐다.

▲成炳旭(61년 文理大卒·중앙일보논설주간·本會理事)＝한국신문편집인협회 부회장에 선임.

▲洪淳瑛(61년 法大卒·前외무차관·本會理事)＝지난달 20일 駐독일대사에 임명.

▲孫基昌(62년 商大卒·前和承그룹사장)＝지난달 5일 同社 부회장으로 승진.

▲宋 敏(63년 文理大卒·국민대교수)＝지난달 18일 국립국어연구원장에 선임.

▲李東和(63년 文理大卒·서울신문주필·本報論說委員)＝최근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이사에 선임됐다.

▲許昌雲(63년 文理大卒·모교교수)＝금년 1월1일자로 한국뷔시너학회 제3대 회장에 취임.

▲金大中(63년 法大卒·조선일보주필·本會理事)＝한국신문편집인협회 부회장에 선임.

▲南在祐(63년 法大卒·나전모방사장·本會理事)＝지난달 13일 중국 遼寧省으로부터 명예省民으로 추대됐다.

▲李泰衡(63년 商大卒·수자원공사감사·本會理事)＝지난달 17일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승진.

▲李豪淵(64년 法大卒·前西光전무)＝지난달 3일 同社 부사장으로 승진.

▲申英一(65년 商大卒·前西光대표이사부사장)＝지난달 3일 同社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金泰和(66년 工大卒·三和콘덴서전무·本會理事)＝지난달 5일 同社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洪羅喜(67년 美大卒)＝지난달 4일 삼성미술문화재단 호암미술관장에 취임.

▲黃龍植(67년 法大卒·前외무부국제기구국심의관)＝지난달 4일 駐제네바유엔사무처 공사에 임명됐다.

▲李太一(68년 法大卒·동아대교수)＝지난해 12월 동아대학교 제9대 총장에 선출됐다.

▲李道祚(69년 法大卒·경찰청형사과장)＝지난달 16일 경무관으로 승진.

▲金一燮(69년 商大卒·삼일회계법인·本會理事)＝1월11일자로 세계화추진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宋憲鎭(71년 文理大卒·前우성타이어)＝지난달 4일 同社 이사대우로 승진.

▲金觀鎭(73년 農大卒·밀양산업대교수)＝작년 10월 밀양산업대학교 교무처장에 선임.

▲黃活雄(72년 法大卒·前경찰大학생지도부장·本會理事)＝지난 12월28일자로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으로 부임.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그룹상무이사)＝최근 한국PR협회 차기회장 및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에 선임.

▲李啓炯(77년 師大卒·통상산업부 불공정수출입조사과장)＝기구개편에 따라 통상산업부 세계무역기구 담당관으로 발령.

▲成樂合(85년 行大院卒·남대문경찰서장)＝지난달 16일 경무관으로 승진.

故 金正瀧동문

희생적 사랑으로 소명다해

지난달 17일 가뭄대책등으로 격무에 시달려온 金正瀧(66년 法大卒·농림수산부차관보)동문이 뇌출혈로 별세했다. 향년 52세.

유가족들은 평소 『죽으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간, 콩팥, 안구등 장기를 기증, 7명의 환자들이 새 생명을 갖게 됐으며, 정부에서는 그 뜻을 기려 金동문을 차관으로 추증하는 한편 황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예 식

＊허창행군(82년 工大卒) 홍성림양＝2월16일 14시.

＊김건하군(94년 醫大卒) 김광희양＝2월18일 12시30분.

＊이시연군(86년 工大卒) 박영주양＝2월18일 14시.

＊김민규군(94년 工大卒) 배은실양)＝2월18일 15시30분.

＊전영웅군(93년 行大院卒)이기원양＝2월19일 12시30분.

＊류제원군(90년 工大卒) 나윤정양＝2월20일 13시.

＊장병희군(90년 人文大卒)박명숙양＝2월25일 14시.

＊양영철군(86년 法大卒) 정옥실양＝2월25일 15시 30분.

＊조선환군(89년 社會大卒)조남경양＝2월26일 12시30분.

＊배종화군(91년 農大卒) 노은영양＝2월26일 14시.

＊조상수군(91년 社會大卒)·현정희양(89년 看護大卒)＝2월26일 15시30분.

＊엄두용군(93년 環大院卒)·신동애양＝3월1일 11시.

＊김기호군(93년 人文大卒)이나주양＝3월1일 12시30분.

＊김용환군(91년 工大卒) 이성진양＝3월1일 14시.

＊서보성군(90년 經營大卒)이현숙양＝3월4일 12시30분.

＊임용진군(90년 社會大卒)·신종순양＝3월4일 14시.

＊성낙진군(90년 自然大卒)·남경아양＝3월5일 12시30분.

＊오영훈군(88년 自然大卒)오윤주양＝3월5일 14시.

＊이상호군(92년 法大卒) 조은정양＝3월11일 14시.

〈정리:金愛泳기자〉

동문여러분 年會費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理事 : 94년 12월 4일～12월 31일

會長團

▲최주호 명예회장＝30만원

理 事

◇人文大學

▲안병욱⑯성심여대교수
▲정희보⑱KBS뉴스기획부

◇社會科學大學

▲김인곤⑯한국스쿠브지사장
▲남궁근⑯경상대교수
▲명노율⑱제일투자금융
▲박찬욱⑯서울대교수
▲박호전⑯(주)삼덕사장
▲박화순⑰논산세무서장
▲윤영진⑯계명대교수
▲이　기⑱대림산업부장
▲이규진⑯중앙일보사회부
▲이대우⑰제일베어링상무
▲이재건⑰민자당재무심의원
▲이홍규⑯

◇家政大學

▲문영보⑯신구전문대교수
▲박현순⑬KBS제2라디오
▲서영숙⑮숙명여대교수
▲최규련⑭수원대교수

◇看護大學

▲강숙녀㊽고려병원간호과
▲김성자㊻前근로복지공사
▲서춘원⑩보라매병원간호과
▲이은숙⑮서울대병원간호과
▲정윤남⑭서울대병원간호과

◇經營大學

▲권기출⑯재우기계이사
▲박정래⑯금성의료기이사
▲정찬우⑯회계사

◇工科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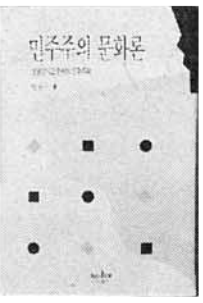
▲김재홍㊸산업대명예교수
▲김경식㊻특허법률사무소장
▲김덕영㊼롯데기공기술고문
▲이규재㊼
▲주찬응㊹우성ENG회장
▲강관원㊺인하대교수
▲강기세㊿범건축컨설턴트
▲강동신㊾영신열기사장
▲강수철㊽대한유화공업고문
▲강용식㊸중앙대교수
▲고재웅㊻건국대교수
▲공철규㊶
▲곽　승㊸삼성화학부사장
▲곽영순㊻前부산대교수
▲권수웅㊷인천제철부사장
▲권숙문㊲前전남대교수
▲권영하㊽삼성전자상무
▲김계호㊽유니시스템코리아
▲김광옥㊶케미에이스사장
▲김구권㊼선일실업전무
▲김국진⑩태평실업사장
▲김군희⑪제일모직섬유硏
▲김기주㊶전북대교수
▲김노수㊲서울대명예교수
▲김도심㊽신아화학부사장
▲김명국㊱화신철재사장
▲김병기㊾쌍용양회이사
▲김병래㊽前웰퍼시픽부사장
▲김병찬㊼성균관대교수
▲김상권⑩현대자동차이사
▲김상규㊶동국대교수
▲김상식㊹서울공전교수
▲김상회㊹태영석회사장
▲김석범⑮경기대교수
▲김석수⑰동서유지이사
▲김선구㊹수자원公본부장
▲김성중㊻디케이테크사장
▲김송평㊽삼영산업사장
▲김영경㊻U. T. I. 사장
▲김영배㊼대흥광업기술소장
▲김영휘㊿고려대교수
▲김용덕㊽기술금융부사장
▲김원배㊾동아ENG상무
▲김윤규㊸대창공업부사장
▲김윤환㊻한진건설이사
▲김익곤⑭지지컨설턴트사장
▲김인기㊸우보기술단회장
▲김재령㊼오진건축사무소
▲김재탁㊶일산강철사장
▲김정순⑲신한기업이사
▲김종욱㊺동양섬유사장
▲김주호㊽前한국전력
▲김준호㊹범아건축사장
▲김창현㊿신화건축소장
▲김천욱㊾연세대교수
▲김철기㊶삼주건영이사
▲김치각㊶前대한중석
▲김태화㊻삼화콘덴서사장
▲김태환⑩서전통상상무
▲김한성㊺건국대교수
▲김항진㊶연세비디오
▲김현진㊿영진건설전무
▲김형전㊻남흥건설사장
▲김형주㊿삼안건설기술공사
▲김형태㊶삼인유니코라스
▲김호대⑩삼성전관전무
▲김회재㊿태일송풍기사장
▲김효경㊽서울대명예교수
▲김희열㊼영신전기회장
▲남택중㊻조흥銀반월지점
▲남학우㊽前한국산업증권
▲노준철㊼럭키전무
▲도일웅㊻세지ENG사장
▲명계복㊿동일기술公부사장
▲문광순㊹계면공학硏소장
▲문동주⑩국토개발硏실장
▲문석형㊹원자력안전기술원
▲민정근㊻원방전기회장
▲박동서㊺현대건설상무
▲박만석㊶前서울시국장
▲박민남㊺동아건설상무
▲박상규㊽파스퇴르유업사장
▲박성현㊽서울대교수
▲박용규㊷극동건설부사장
▲박원준⑪테크앤ENG사장
▲박인균㊱범창양행사장
▲박종률㊾유공가스사장
▲박종인㊸동국화공사장
▲박종철㊾호남정유이사
▲박종태㊺성보건설부사장
▲박찬모㊽포항공대교수
▲박찬섭㊿(주)태영부사장
▲박철수㊺한화그룹비서실
▲박희동㊽태인개발부사장
▲박희석㊼제양전기사장
▲배기은㊼화진테이크로회장
▲배상호㊽쌍용정유전무
▲배창국㊼성동기술사장
▲백선기㊻석암콘크리트회장
▲백용현㊷인하대교수
▲백창현㊹산업기술진흥협회
▲백태무⑭현대산업개발이사
▲변문현㊼충남대교수
▲복거성⑫메탈게젤샤프트
▲서동원⑭재정경제원 금융실
▲서문호⑭건국대교수
▲서병은㊷다모아제지부사장
▲서상규㊽MBC기술위원
▲서인원㊻성일콘트롤사장
▲서진근㊽중앙학원장
▲서항석⑭에너지기술연구소
▲서효준㊶한국자원연구소
▲설원길㊱원영기업사장
▲성기상㊻협성농산사장
▲성기수㊽KAIST교수
▲성영환㊹코오롱건설
▲성재경㊼남서해운사장
▲성한표㊻한겨레신문사
▲소봉영㊻동아건설전무
▲손　욱㊼삼성전자
▲손인현㊹세경산업사장
▲송재규㊾이세교역사장
▲송재근㊶대진전기판매사장
▲송재준⑩한모기술사장
▲송종섭㊶무림산업사장
▲송주철㊶한국관세硏소장
▲송홍빈㊽前금성정밀실장
▲신경식㊺
▲신금진㊻한국전력기술고문
▲신명환㊿동부건설전무
▲신승철⑭
▲신현국㊽대한석탄公소장
▲심세진㊺대한정밀화학사장
▲심이택㊸대한항공부사장
▲심인보㊼거양개발회장
▲심정섭㊽서울대명예교수
▲안동원㊺현상사사장
▲안병휘㊾삼천리부회장
▲안사은㊶신안정밀사장
▲안삼덕㊻송추관광개발
▲안선구㊻서인건축사장
▲안승본㊻럭키화재보험상무
▲양현승㊷우대기술단사장
▲여인희㊸오리엔탈전자사장
▲염사연⑪현대ENG이사
▲오영전㊼삼주서비스시스템
▲오원탁⑩삼성ENG
▲오창석㊻한국TPM
▲우무상㊺세한ENG부사장
▲우복균㊾삼성특수고무회장
▲우상선⑫제일모직소장
▲우영배⑫웨스팅하우스전무
▲원명희㊾명건축사장
▲원정수㊼인하대교수
▲유봉환㊶숭실대교수
▲유성묵⑩(주)세창사장
▲윤　무㊺대림ENG상무
▲윤병도㊺중앙대교수
▲윤병홉⑩한국통신부장
▲윤순용㊹럭키전무
▲윤의병㊽삼진전기고문
▲윤종룡㊻삼성전관사장
▲윤한욱㊾대성탄좌부사장
▲이　관㊸경원대교수
▲이　선㊸해외기술公부사장
▲이강국㊾한국알콜산업전무
▲이계수㊼동화산업상무
▲이광우㊹롯데햄·우유상무
▲이광재㊽원자력硏사업단장
▲이규석㊶두원공업사장
▲이기성㊼前석탄산업사업단
▲이기종㊽전주우석대교수

(19면에 계속)

문화단신

新刊

■민주주의 문화론
－白完基 著



행정을 문화의 시각에서 분석한「한국의 행정문화」를 집필한 白完基(59년 文理大卒)동문이 민주주의를 문화의 시각에서 바라본 책.

자유, 평등, 권력, 질서 등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의 생활속에서의 정착 문제를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인 白동문은 한국행정학회 회장등을 역임하면서 한국정치와 민주주의를 연구해왔다.

〈나남출판刊·값8,500원〉

■당신의 미래는 방송에 있다
－康容植 著

康容植(63년 法大卒)동문은 64년 TBC 공채 1기로 방송에 입문, KBS 보도본부장을 끝으로 20여년간 일선 기자로 방송보도에 참여해 온 대표적인 1세대 방송기자의 한사람이다.

康동문은 이 책에서 6·3사태, 한·일협정 비준, 3선 개헌, 10월 유신, 방송통폐합, 이산가족찾기 방송, KAL기 격추사건, 아웅산 사건등을 겪으면서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었던 취재 비화, 일화등을 회고하면서 21세기 뉴미디어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를 방송의 위상을 그리고 있다.

〈중앙일보사刊·값5천원〉

－바로 잡습니다－

지난호(202호) 9면 기(과)별 동창회 기사中「기계공학과동창회」를「기계동문회」로, 법대17동기회 회장「崔松和」를「崔勝民」으로 바로 잡습니다.

또 11면 추억의 앨범 기사中「姜大實」은「康大憲」의 오기이며 17면 千貞姬 귀국독창회 기사中「현재 모교음대와 성신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 잡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암으로부터 지킨다
－徐廷珍 著

신풍제약 중앙연구소 소장으로 자연을 이용한 건강법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徐廷珍(65년 藥大卒)박사의 두번째 저서.

「사랑하는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사랑하는 가족을 암으로부터 지킨다」,「건강과 암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본다」의 3부로 이뤄진 이 책은 사랑하는 가족이 암에 걸린 경우나 암 예방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엮은 것이다.

〈정보기획 서박刊·값6천원〉

■경쟁력은 생산성이다
－朴在興 著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받고 대한품질경영학회와 한국생산관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朴在興(68년 工大卒)동문은 이 책에서 생산성 향상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면서 높은 생산성은 국민생활수준을 높여주고 기업 및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유나이티드컨설팅그룹刊·값7천원〉

■건전가정 30훈(訓)
－姜智遠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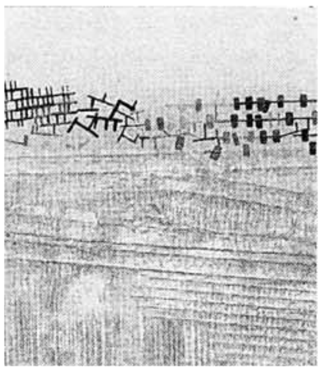
청소년문제·가정문제전문가인 법무부 姜智遠(72년 文理大卒)부장검사가「청소년 자녀의 비행 예방과 건전한 가정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가정에서 실천해야할 덕목 30가지」를 제안, 가정문화의 총체적 측면에서 자녀 교육문제에 접근한 최초의 교육 지침서를 저술했다.

〈기린원刊·값6천원〉

展示

■金惠林작품전
－2월3～8일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85년 미대 회화과와 92년 호주 시드니 미대를 졸업한 金惠林동문의 판화, 유화전. 백색의 화면위에 선의 율동과 색채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순수조형 질서와 시각적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金동문은 82년 한국 현대판화가협회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뒤 85



년 평면구조전, 86년 서울판화, 90년 Print 6인전, 91년 Diplma작품발표전, 94년 제8회 프린트 아카데미전 등 수많은 작품활동을 펼쳐왔다.

公演

■姜允珠피아노 獨奏會
－2월3일 예술의전당

84년 음대에 입학한 뒤 85년 줄리어드 음대에 유학, 同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뉴욕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시「쇼팽의 24개 전주곡에 대한 연구」로 최연소자 학위를 받아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다양하고 폭넓은 음악수업을 거친 姜동문은 바로크에서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많은 레퍼토리와 이론적 시각을 바

탕으로 설득력있는 곡해설의 장기를 지니고 있으며 풍부한 톤과 섬세한 기교의 피아니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독주회에선 베토벤, 쇼팽, 바르톡, 리스트와 라뮤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宋庭旼 클라리넷獨奏會
－2월6일 예술의 전당

91년 음대를 수석졸업, 재학중에 세계적 거장들이 이끄는

마스터클래스와 섬머 아카데미에 참가, 기량을 넓혀왔던 宋동문은 특히 이태리의 영 뮤지션 페스티발에서 칼 레이스터로부터 탁월한 연주력을 인정받아 이태리에서 연주회를 갖는 기회를 얻었고 미국에서는 거장 하롤드 라이트에게 발탁되어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오브 뮤직석사과정을 졸업시까지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

현재 KBS교향악단 단원으로 예원여고에 출강하고 있으며, 각종 앙상블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날에는 슈만, 쁠랑, 웨버, 스트라빈스키, 바빈의 작품을 연주한다.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정치학과 83동기회보 모음집

모교 정치학과 83동기회(회장 金南局)는 최근 그동안의 동기회보를 묶어 모음집을 발간했다.「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는 제호의 이 모음집은 계간으로 발행된 90년 봄호(1호)부터 94년 겨울호(14호)까지 한데 모은 것으로 동기들의 우애를 다지는데 중요한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50·60년대 동기회들에 비해 70·80년대 동기회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현실인데, 다른 동기회들도 83동기회처럼 더욱 활발히 활동할 것을 기대해 본다.

〈정리:安興燮기자〉

■한국학총서
－金元龍·張師勛外 3人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면서 이에 대한 서책들이 서점가에서 주가를 올리며, 한국의 참모습을 찾으려는 지식인들의 의식변화가 일고 있는 때에 서울대출판부가 한국학 관계 연구서를 모아「한국학총서」5권을 한 질로 묶어 출간했다.

평생을 연구에 전념, 학문적 성취를 이룩한 학계의 진보적 존재인 모교명예교수 다섯 분의 각기 이룩한 연구업적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이 총서는 모교의 자랑인 先學들의 학문연구서중에서 한국학 관계부분만을 집대성, 후세에 전수코자 기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선 그 1차분으로 모교 출판부에서 旣刊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

故 金元龍(45년 京城帝大卒)교수와 安輝濬(67년 文理大卒)모교박물관장의「韓國美術史」, 故 張師勛(68년 大學院卒)교수의「韓國樂器大觀」, 李杜鉉(50년 師範大卒)교수의「韓國假面劇」, 康永夏(67년 大學院卒)교수의「韓國의 鐘」, 金在瑾(43년 京城帝大卒)교수의「韓國의 배(船舶)」등 다섯권이다.

이 저서들은 저자의 학문적 업적에서도 출중할 뿐만아니라 한국학연구의 필수서로서 외국학자들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 권위가 인정되고 있다. 서울대출판부의 車培根

교수는 1차분 출간을 계기로 한국학 총서의 분야를 넓혀 한국문화에 대한 것 뿐만아니라 한국의 식물·동물·농작물·건축·식생활에 이르는 학술연구서들도 이 총서에 포함시켜 명실상부한 한국학총서로 발전시켜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4·6배판 하드카바로 장정돼 울 박스에 넣어진 이 총서는 한국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 외에 외국인을 위한 선물로도 값어치가 있겠다.

〈서울대출판부刊〉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第203號

(19면에 이어)

▲김응재㉜前대양도료상사
▲김의식㊹롯데그룹상무
▲김익하㊹변호사
▲김인수㉛대구지법경주지원
▲김인중㊵변호사
▲김재덕㊼만태상사사장
▲김재수㊹한국은행인천지점
▲김정곤㊹한도ENG사장
▲김정준㊵불티나상사사장
▲김종건㊺국민은행검사부장
▲김종기㊵중앙감정평가법인
▲김종복㉞산업銀투자기획부
▲김종환㉜변호사
▲김주수㊳연세대교수
▲김준섭㊾장기신용銀이사
▲김지수㊲광양선박사장
▲김진무㊹산요반도체고문
▲김진석㊳변호사
▲김진탁㊵동양타일사장
▲김진호㊶한전남인천지점
▲김창근㊻서울시립강남병원
▲김창기㊸한국금융연수원
▲김창섭㉜
▲김창준㊳외국어대교수
▲김창희㊻한국산업투자자문
▲김태준㊶수출보험公사장
▲김학원㉚변호사
▲김학윤㉜대구고법인사부장
▲김현채㊶변호사
▲김형정㊸한일銀신용사업부
▲김홍규㊲연세대교수
▲김희중㊹신탁銀양재동지점
▲나옥균㊺한화그룹이사
▲나형수㊸변호사
▲나홍렬㊴장기신용銀과장
▲남궁민㊳
▲남승우㉞풀무원식품사장
▲남윤호㊳변호사
▲노명준㊶외국어대교수
▲노순길㉝변호사
▲노승두㊲변호사
▲노승행㊸변호사
▲도준환㉜선경유통구매부장
▲문영극㊾관세사무소
▲문정두㊹변호사
▲민수광㊹현대건설이사
▲민수명㊹서울고법부장판사
▲박경구㊹변호사
▲박광신㊻청주지검검사
▲박길준㊵연세대교수
▲박병민㉝광주銀부장
▲박병서㊹신일ENG사장
▲박부찬㊵지방자치경영협회
▲박상기㊶변호사
▲박상열㊴변호사
▲박석규㊾한양유통이사
▲박성달㊵前감사원감사위원
▲박세철㊺구양흥업사장
▲박영구㉝한화그룹차장
▲박영태㊺한국금융안전사장
▲박용우㊹한양화학상무
▲박재권㉝서울지검북부지청
▲박정선㊹삼포식품사장
▲박종성㊼서울지법판사
▲박종흡㊻국회운영전문위원
▲박준수㊺민사지원부장판사
▲박준수㊷제일은행조사역
▲박준양㊳변호사
▲박준용㊵변호사
▲박치영㊿한양대교수
▲박태웅㊹대우기획조정실
▲박태일㊳기영섬유사장
▲박태종㊾법무부제1과장
▲박태흡㊷신용보증기금
▲박현문㉟삼성생명보험부장
▲박홍식㊷산업기술정보원장
▲배광모㊴前성진학원강사
▲배석필㊷前신용보증부장
▲백윤수㊾경주관광대교수
▲변재일㊸변호사
▲상세환㊺서흥부회장
▲서기석㊻정림건축기획실장
▲서상희㉜삼성물산이사
▲서재헌㉛서울남부지원
▲서종환㊼공보처방송매체
▲석광세㊸럭키개발법제실장
▲설동훈㊶변호사
▲성낙천㊾한국공항공단감사
▲소권호㊾전주교대명예교수
▲소정호㊶전화번호부감사
▲소진철㊳원광대교수
▲소칠룡㉜변호사
▲손관호㊺前공무원연금공단
▲손근석㊸포스코개발회장
▲손동원㊲홍국상사고문
▲손병기㊴목원대교수
▲손수익㊻국토개발硏자문
▲손정현㊷前산업銀부총재보
▲송기방㊸변호사
▲송기홍㊹대구고법판사
▲송재룡㊷농협여의도지점
▲송준채㊸한국銀금융연수원
▲송한청㊵前동화은행전무
▲신갑철㊵수출입보험공사
▲신동수㊸삼환상호신용금고
▲신봉식㊳한국창업투자사장
▲신성철㊾변호사
▲신억현㊸외환은행영업부장
▲신연호㊲산업안전관리協
▲신춘호㊺외환銀과천지점
▲신화중㊴제일통상상무
▲신홍범㊳제일증권상임고문
▲심상명㊹수원지검장
▲안성철㊸유티코사장
▲양 영㊻한진기획실이사
▲양승권㊺외환銀조사역
▲양영준㊼변호사
▲양유석㊳통신개발연구원
▲양창덕㊷DIC사장
▲양형진㊹삼양사전무
▲오연근㊲변호사
▲오종남㉟경제기획원과장
▲오준환㊺前극동정우상무
▲오태환㊲개담회장
▲오혁진㊶변호사
▲우영제㊵변호사
▲우정권㊻변호사
▲원우현㊺고려대교수
▲원장환㊷삼원빌딩사장
▲유광현㊼포스코개발차장
▲유길수㊳변호사
▲유달선㊻산업증권부차장
▲유덕택㊳인천일보상무
▲유석원㊲前선경고문
▲유성근㉝서강대교수
▲유재웅㊸제일은행상무
▲유재인㊷제일시티리스부장
▲유제인㉜대전지검
▲유종해㊹연세대교수
▲유중년㊴웨스콘사장
▲유태근㊵삼화서적상무
▲유홍배㊲이수텔코사장
▲유희렬㊸한국타이어제조
▲윤덕규㊶前군통신연합이사
▲윤덕순㊸한국은행부장
▲윤성태㊺前국무총리실장
▲윤정진㊶아시아나항공
▲윤준원㉛고려통운사장
▲윤태남㊸한양공영이사
▲윤형로㊹(주)파고다사장
▲이 웅㊸변호사
▲이갑수㉜증권감독원차장
▲이강남㉜부산고법판사
▲이강훈㊷동진정보시스템
▲이건우㊻통상산업부국장
▲이건호㊶변호사
▲이계천㊸
▲이광록㊴코스모스피어사장
▲이규오㊼前한국제지聯회장
▲이기현㊺보신물산상임감사
▲이논규㊺법무사
▲이동춘㊸포항제철부사장
▲이문수㉝포항제철차장
▲이백수㊶경일감정연수원
▲이범재㊷용민INT사장
▲이병기㊷남해화학
▲이상회㊸대한교육보험이사
▲이선하㊳동부레미콘관리과
▲이성환㊳변호사
▲이수성㊶서울대교수
▲이수엽㊲변호사
▲이순구㊺부산은행
▲이순배㊷청우무역사장
▲이영범㊸광주고법
▲이영오㉚
▲이영주㊸조달청외자1과장
▲이영준㊶변호사
▲이용훈㊸서울고법부장
▲이우영㊹영화사장
▲이유영㊼변호사
▲이윤승㉟대법원재판연구관
▲이웅웅㊺서울고법부장판사
▲이응한㊿변호사
▲이인재㊼부산지법부장판사
▲이인표㊳
▲이인호㊾산업銀동울산지점
▲이임수㊹대법원대법관
▲이재기㉞변호사
▲이재영㊷동창실업사장
▲이정무㊹국회의원
▲이정환㊹한일銀신흥동지점
▲이정훈㊸변호사
▲이종욱㊸변호사
▲이준규㊱외무부과장
▲이지수㊺상업은행국제부장
▲이진두㊼부산일보문화부장
▲이창식㊸한국자동차보험
▲이창원㊵한국단자공업
▲이철호㊸럭키금성전무
▲이태수㊺대유증권부회장
▲이해석㊶신탁은행연수원
▲이현승㉛서울가정법원판사
▲이홍서㊺산업銀국제부
▲이희진㊸국민투자신탁
▲임두빈㊲동아법무법인
▲임순철㊶변호사
▲임영민㊸금성정보통신상무
▲임영수㉝변호사
▲임인택㊸교통개발硏위원
▲임창원㊸변호사
▲임태유㊹변호사
▲장상재㊴경찰委원장
▲장석주㊶前상업銀검사역
▲장유석㊺국민銀종로지점
▲장인현㉟제우상사사장
▲장주일㊴오성INT전무
▲정 렬㊷산업銀
▲정구영㊷변호사
▲정기영㊺우진상사장
▲정기환㊺삼현사장
▲정명택㊹변호사
▲정배근㊵삼강전기사장
▲정병석㊼변호사
▲정수영㊲한주전자사장
▲정시영㊹변호사
▲정영일㊾변호사
▲정용식㊺변호사
▲정인규㊲현대종합금융회장
▲정인섭㊼방송통신대교수
▲정재형㊸조흥銀종로지점
▲정정일㊸현대상사부사장
▲정찬형㉜고려대교수
▲정태세㉜변호사
▲정태웅㊷변호사
▲정태창㊸신일흥산사장
▲정휘박㊳한국악기協전무
▲정희준㊸기업銀외환업무부
▲조관행㊸한국보증보험사장
▲조남돈㊱변호사
▲조동진㊼호텔롯데상임이사
▲조동평㊺한국전력公차장
▲조병선㊶금평산업전무
▲조병현㊳대법원재판연구관
▲조성일㊺협신상호신용금고
▲조영동㊲방산지업사장
▲조왕제㊵인천투자금융사장
▲조용국㊸부산지검동부지청
▲조용국㊾사조산업영업본부
▲조정만㊵양지회원사장
▲조정주㊷제일빌딩관리이사
▲조준웅㊼서울지검차장검사
▲조지연㊹신한상호신용금고
▲조택근㊳아주생명보험전무
▲조헌발㉜
▲조형일㉝H.I무역사장
▲주진학㊳변호사
▲주창순㊳새웅산업전무
▲지원훈㊺예술의전당감사
▲차수명㊸국회의원
▲차승철㊳한외종합금융사장
▲채상룡㊻범양식품
▲최 명㊷서울대교수
▲최강호㉛우성해운차장
▲최기혁㊷기업銀이사
▲최대유㊻코스탈파워사장
▲최명의㊱조흥증권이사
▲최병철㊲전곡유지공업회장
▲최병학㊺대전고법부장판사
▲최상기㊸삼익주택상무
▲최상태㊹한국일보홍보실장
▲최상현㊹동화은행상무
▲최익균㊺변호사
▲최주곤㊿변호사
▲최한욱㊻일일기획사장
▲추광태㊸한일銀법규실장
▲추영일㊺제일銀업무추진역
▲하경철㊶변호사
▲한경국㊶변호사
▲한광세㊹변호사
▲한광환㊶前가나공사회장
▲한덕수㊴내츄럴하우스사장
▲한상호㉜법원행정처조사국
▲한수복㊼변호사
▲한영광㊼前충남방적상무
▲한정진㊹변호사
▲함민식㊹한일銀카드사업부
▲허 향㊿변호사
▲현병무㊻배성물산회장
▲현천욱㊱변호사
▲현휘남㊸동아생명전무
▲호영진㊵한국경제신문고문
▲홍돈표㊼한국銀춘천지점
▲홍명선㊺前대법원총무국장
▲홍병의㊹변호사
▲홍성계㊹춘천지검강릉지청
▲홍순우㊾한국銀외환관리부
▲홍종현㊸대한화재한매점
▲황경진㊻선계무역회장
▲황선당㊳변호사
▲황영하㊹前총무처장관
▲황의순㊱한진해운심사부
▲황이연㊶한국보훈복지公
▲황인만㊳변호사
▲황재성㊾화홍상사사장
▲황진호㊻변호사
▲황철수㊺변호사
▲황활웅㉜서울시경정보부장

◇ 師範大學

▲강규석㊷강릉대교수
▲강대은㊳
▲강순구㊴매산여고교장
▲강영삼㊸국민대교수
▲곽철규㊲충북대교수
▲권경주㊳前배화여중
▲김광수㊻둔내중고교
▲김기곤㊻전주교대교수
▲김낙승㊾前청운중교장
▲김난수㊹광주대총장
▲김덕순㊳명일여고교장
▲김덕희㊷서울교육청장학사
▲김동수㊶여의도고교장
▲김동현㊲동의전문대학장
▲김명자㊾숙명여대교수
▲김식중㉛前목포교대학장
▲김용일㊴숙명여대교수
▲김윤태㊵서강대교수
▲김일기㊷한국교원대교수
▲김일수㉛MBC라디오제작
▲김정웅㊺남부교육청장학사
▲김종성㊺경기공업개방대
▲김진규㊷양서중학교장
▲김창환㊵경상대교수
▲김화천㊸방송委심의위원
▲나도승㊷금강권연구소
▲노두호㊺금성고교장
▲박금옥㉜신구전문대교수
▲박남기㊺前고척도서관장
▲박남혁㊶과학교육원장학사
▲박상규㊲마산고교장
▲박영목㉚홍익대교수
▲박장순㊲제일영동학원장
▲박진태㉜대구대교수
▲박찬세㊳대일학원회장
▲배구섭㊺그린테니스클럽
▲배영부㉞서울교대교수
▲배종무㊳목포대총장
▲서평웅㊾과학교육원장학사
▲손진우㉞경남대교수
▲신동일㊳경인유조회장
▲신상옥㊸중앙대교수
▲신세호㊵제주대교수
▲신용래㊻경남교육청중등국
▲심봉석㊹상봉교역사장
▲양교석㊸중부교육청계장
▲우경자㊺인하대교수
▲원호택㊳서울대교수
▲위성소㊹지방행정硏사무국
▲유광현㊽춘강학원이사장
▲유민영㊶단국대교수
▲유왕렬㊵목포대교수
▲이맹성㊳서울대교수
▲이봉준㊳아현중교장
▲이완기㊽
▲이인규㊺진성여중교장
▲이종면㊵풍납중교장
▲이중섭㊻분당고교장
▲이진재㊵서울교육委연구원
▲이형연㊲고려중교장
▲이희용㊹진일특수화학사장
▲인영희㊵명일여중교장
▲장상곤㊺동아청소년교육원
▲장선식㊹국방대학원
▲전성탁㊳춘천교대교수
▲정덕희㊷서울교대교수
▲정주섭㊲백석중교장
▲정창현㊼한국교원대교수
▲정하신㊶건국대교수
▲조명희㉛서원대교수
▲조순옥㊷서울교대교수

(21면에 계속)

(18면에 이어)

▲이기준⑥①서울대교수
▲이기창⑤⑧前서울시건설본부
▲이대락⑥⑥세미크론사장
▲이면기⑥⑧선경인더스트리
▲이문득⑤③서울대명예교수
▲이상각⑦③KPK통상이사
▲이상현⑦④우영산업사장
▲이석규⑥③린나이코리아전무
▲이선우⑤⑨호남석유화학전무
▲이승우⑤④서울산업대교수
▲이영근⑤⑧정아건설
▲이옥석⑤⑥강우기업사장
▲이우현⑤⑥중앙대교수
▲이이국⑥⑥대림ENG상무
▲이재규⑤③건축환경스페이스
▲이재욱⑤⑤동남철강사장
▲이정무⑦②대우부장
▲이정북⑤⑥대현기공사장
▲이정성⑤⑨럭키금속사장
▲이정인⑥③서울대교수
▲이종성⑥⑤대우자동차전무
▲이종찬⑤⑨기린시스템사장
▲이준원⑦⑤현대자동차부장
▲이중재⑦①한국전력公부처장
▲이철수⑥⑤고려대교수
▲이충수⑤⑧정진INT사장
▲이헌기⑤⑧
▲이호정⑦④텍스라인무역사장
▲이환범⑥②대영ENG사장
▲이훈섭⑦④前물가협회전무
▲이희보⑤④전북대교수
▲인주선⑥③호남해운사장
▲임병문⑥④경향건설부사장
▲임성택⑤⑧삼남석유화학사장
▲임정명⑥②부산대교수
▲장건석⑤⑨럭키개발전무
▲장진양⑦①대림산업이사
▲장하린⑥⓪금호전력이사
▲장희익⑦②럭키금성상무
▲전국전⑥①한일銀청량리지점
▲전덕원⑤⑧신용보증기금감사
▲전용원⑤④서울대교수
▲전재풍⑥④한전원자력건설
▲전춘생⑤④인하대명예교수
▲정규동⑦⑤삼보컴퓨터상무
▲정범식⑦①호남석유화학실장
▲정선기⑥③쌍용제지사장
▲정성우⑥⑨바이오텍사장
▲정수민⑥⑥쁘렝땅백화점
▲정우모⑥⓪태영그룹부회장
▲정인엽⑤⓪강원산업명예회장
▲정조섭⑥①중앙대교수
▲조규완⑤⑤삼부산업사장
▲조근행⑥⑥현대석유화학전무
▲조영선⑦⑤토모사장
▲조옥찬⑥①인하대교수
▲조일제⑤⑥前영풍산업부회장
▲조정주⑤⑨금성정보통신
▲조태현⑥⑦화승전자사장
▲조형제⑤⑤한화미상사사장
▲주　백⑤⑨학송산업사장
▲지동범⑤⑤한국제지사장
▲진영무⑥⑨대우자동차이사
▲채호석⑤③협진정밀회장
▲최광준⑤②진일산업사장
▲최동일⑥⑥유공가스부사장
▲최동재⑥⑤前동일제강전무
▲최만형⑤⑥동방전자산업사장
▲최민호⑥④홍익대교수
▲최상홍⑤⑧한일기술硏회장
▲최운재⑤⑥
▲최인재⑤⑦협우사장
▲최창영⑥⑨고려아연부회장
▲최창환⑥④창성금속사장
▲최홍민⑤⑥한국로드회장
▲편도권⑤⑧유신설계공단
▲하완식⑤⑦서울대교수
▲한상겸⑤⑦우림건축사장
▲한성갑⑤⑥럭키금성고문
▲함　길⑤④철도기술協이사
▲허　달⑥④유공상무
▲허명렬⑤⑨덕산ENG부사장
▲허영우⑤②한양대교수
▲허인석⑦②우성산업사장
▲홍광표⑥③남양세라미스사장
▲홍석도⑥⑨금화기공전무
▲홍태선⑥⑤한보철강사장
▲황규렬⑤⑦삼정인테리어사장
▲황문익⑤⑨前금성통신공사
▲황상일⑤④서광산업감사

◇農科大學

▲엄기덕④⑨보영양행사장
▲강인목⑤⑧성보화학감사
▲곽영철⑥⑤동아건설부사장
▲구자웅⑦②전북대교수
▲권오준⑥⑨종합기술개발공사
▲김광호⑥⑤건국대교수
▲김규환⑤②예산농전교수
▲김동호⑤⑤경남건설사장
▲김상국⑤⑥세창철강사장
▲김상호⑥②대풍상사사장
▲김석동⑦⓪작물시험장과장
▲김원훈⑤⑧前의료보험조합
▲김윤배⑥⑥특허법률사무소장
▲김일봉⑦②(주)한금관매사장
▲김재곤⑤⑤대화기술개발회장
▲김재정⑤③前한국종묘협회장
▲김정인⑥⑨신촌사료부사장
▲김창수⑥④성보화학상무
▲김태욱⑥①서울대교수
▲박양문⑥⓪제주대교수
▲박영균⑤④공주대교수
▲손두식⑥③경북대교수
▲손원교⑦⓪강원대교수
▲손해룡⑥⑤경북대교수
▲신상권⑥⑦영인과학전무
▲유일웅⑦①중앙종묘육종농장
▲유학선⑥②성보화학전무
▲이광원⑥⑤삼풍제지이사
▲이규승⑦①충남대교수
▲이남호⑦③안성산업대교수
▲이석주⑤⑧농약공업協상무
▲이여하⑤⑥건국대교수
▲이영돈⑦①성은산업사장
▲이종우⑦⓪동양화학
▲이주렬⑤⑧충남대교수
▲장규섭⑥⑤충남대교수
▲장동섭⑤⑧전남대교수
▲정구현⑤⑦경기건설진흥공단
▲정무남⑥⑦농촌진흥청국장
▲정봉구⑤⑨충북대교수
▲정창주⑤⑦서울대교수
▲최은숙⑥⑤서울대교수
▲최현국⑤③한국기술개발사장
▲홍기용⑥⑨단국대교수
▲홍순근⑤⑦인삼연초시험장
▲홍순홍⑥④충북제사부사장
▲황경구⑥①진광산업사장

◇文理科大學

▲강경식⑥⑥고속버스터미널
▲강일규⑤⑦한국개발리스사장
▲강지원⑦②서울고검검사
▲강호양⑦②남북회담사무국
▲고숙환⑤⑥前교육부
▲고준영⑥②영림기업公사장
▲곽화영⑥⑦에너지관리公부장
▲구춘옥⑥④동부건설감사
▲권무일⑥⑧실버건설부사장
▲권영필⑥⑤고려대교수
▲김경동⑤⑨서울대교수
▲김경한⑥⑧태경사장
▲김계수⑤②외국어대교수
▲김계호⑤②前어린이대공원
▲김교은⑥④농협전문대학장
▲김근수⑦②국민銀서초지점
▲김대기⑥⑨(주)유공이사
▲김동배⑥④주택銀부산지점
▲김동필⑥⑧국민銀
▲김명혁⑥①수원합동신학교
▲김문환⑥⑧서울대교수
▲김병익⑥①문학과 지성사
▲김복문⑤①충북대교수
▲김선엽⑤⑤북부주류판매상사
▲김세준⑤⓪前제일스포츠센터
▲김영구⑥②한영주유소사장
▲김영민⑦⓪대성탄좌
▲김용달⑥②한일투자신탁감사
▲김용술⑥⑥민주당마포갑지구
▲김용철⑦①MBC편집부장
▲김용하⑦⓪공인회계사
▲김운태④⑧서울대명예교수
▲김원기⑤⑦강남대일학원장
▲김익성⑥③칠오산업사장
▲김인호④⑧한솔제지상담역
▲김재룡⑥⑧아태인포서브회장
▲김재혁⑥⑧중앙일보기획담당
▲김정태④⑨상공회의소부회장
▲김종대⑦①보건복지부실장
▲김종래⑦⑤조선일보정치부
▲김진영⑦③동아투자금융부장
▲김찬중⑤⑤한샘루킨전무
▲김철용⑤⑨해운항만청장
▲김태길④⑦서울대명예교수
▲김현철⑥①해운대여고교장
▲김홍준⑥⑧세기문화사장
▲김홍철⑤⑦한양대교수
▲김희상⑦③수도기계화사단장
▲남광성⑥⑤국민연금관리공단
▲남상진④⑨조세금융硏회장
▲남영우⑦②농협중앙회지부장
▲노규래⑥⑤보건복지부국장
▲노미혜⑥⑥여성개발원실장
▲도준호⑥⑤조선일보북한부장
▲도홍렬⑥③충북대교수
▲문무홍⑦①남북회담사무국
▲민병천⑤⑥동국대총장
▲박기덕⑦④세종연구소
▲박남열⑥⑧신용보증이사장
▲박명근⑤⑥국회의원
▲박삼옥⑦⓪국민체육진흥공단
▲박성훈⑦③
▲박영기⑤④
▲박우용⑥③한국파마톤사장
▲박운서⑥③통상산업부차관
▲박종오⑥⓪우양교역사장
▲박주은⑥⑦한국화약전무
▲박홍규⑥⑥외교안보硏교수
▲배중섭⑥①국회도서관장
▲백선복⑥⑦유네스코기획실장
▲백종무④⑧변호사
▲변광수⑥⑨제일은행신탁부
▲서창모⑥⑤한국유흥업중앙회
▲성병욱⑥①중앙일보논설주간
▲손형진⑤⑤前중앙기상대대장
▲송철호⑥⑦제일보젤사장
▲신언훈⑦⑧SBS기획특진부
▲심계섭⑥②서울시교통회관
▲심필섭⑤⑦前관동중교장
▲안병규⑥①前국회의원
▲양재현⑤①前단국대부총장
▲양해출⑤⑤인삼연초연구위원
▲어복선⑤⑧(주)서진상임고문
▲염용제⑤⑧범양ENG부사장
▲오세한⑦⓪농협춘천연수원장
▲오희필⑤③중도발전연구協
▲유승삼⑥⑤중앙일보논설위원
▲유양수⑥②동아응용지질사장
▲유현준⑤⓪육상연맹부회장
▲유형균⑦②보험개발원자보부
▲육세홍⑦⓪국민은행
▲윤　식⑥④산업연구원
▲윤명중⑤⑦방송기자클럽회장
▲윤병석⑤⑦인하대교수
▲윤하정⑤①前외무부차관
▲은무일⑥⑤전북대교수
▲이　재⑦①육사
▲이걸삼⑥⑥과학기술총연합회
▲이계원⑥③유공축구단장
▲이규만⑥⑥(주)KML사장
▲이덕주⑥⓪BBC영어硏사장
▲이동복⑤⑦민족통일연구위원
▲이병학⑥⑧삼주전기전무
▲이상수④⑨KAIST교수
▲이상옥⑤⑦前외무부장관
▲이상진⑤⑦산호건설회장
▲이석구⑥③농협중앙회부장
▲이선배⑤⑤서울북프로모션
▲이연희⑤⑤대한전신공업사장
▲이용일⑦③존슨앤존슨상무
▲이원홍⑤②간행물윤리위원장
▲이인규⑥⓪서울대교수
▲이종구⑥①한국무역개발감사
▲이종하⑦②KBS스포츠국
▲이진환⑦④부산대교수
▲이진희⑤⑧두원INT사장
▲이춘송⑥③경향신문논설위원
▲이한성⑤⑨전은리스명예회장
▲이항주⑥⓪세무회계사무소장
▲임현백⑦⑤이화여대교수
▲장윤경⑤⑥숙명여대교수
▲장정환⑥③동화은행감사
▲정방자⑥⑤효성여대교수
▲정오근⑥⑥경상대사무국장
▲정효섭⑥⑤다락출판사장
▲조건식⑦⑤통일정책실정책관
▲조순승⑤③국회의원
▲주진우⑦④사조산업사장
▲지주선⑤⑧국제문제조사硏
▲진정일⑥④고려대교수
▲진홍순⑦④KBS정치부차장
▲천양철⑥⑨연합통신사회부장
▲최　환⑥⑤법무부검찰국장
▲최규봉⑤⑦변호사
▲최태영⑦⑤럭키증권인천지점
▲최홍기⑤②서울대명예교수
▲표순승⑥⑧건국대교수
▲하대돈⑤⑦(주)삼비회장
▲하명희⑥④연합통신전주지사
▲하영식⑤⑧경기대교수
▲하영준⑥⓪前효성금속사장
▲한동목⑥③화일무역
▲한성강⑥①연합통신기획실장
▲한우석⑤⑤외교안보연구위원
▲허운욱⑥④반포세무서계장
▲홍영대⑦①P.H사약사장
▲홍재관⑦④동양증권법인부장
▲황성일⑥②파주경찰서장

◇美術大學

▲강태성⑤④이화여대교수
▲김기호⑥④서울예전교수
▲김진태⑤⑦대구교육대교수
▲유관호⑥⓪인하대교수
▲정창섭⑤①서울대교수
▲조명형⑥⑤단국대교수
▲홍성문⑤④영남대교수
▲황창배⑦⓪화가

◇法科大學

▲유성삼⑥⑤금성마그네테크
▲강규석⑤⑨세무사
▲강대석⑦①전주지검부장검사
▲강만수⑥⑨
▲강문성⑤⑥대학출판사장
▲강순걸⑤⑧유성물산교역사장
▲강신욱⑥⑦사법연수원부원장
▲강신원⑦⑥변호사
▲강영국⑦⓪한주화학사장
▲강영수⑦⓪변리사
▲강익엽④⑨변호사
▲강인현⑥②한양증권영업부
▲강준철⑤⑧前대한증권사장
▲강홍주⑥②세방종합법무법인
▲강홍석⑥④한국산업銀부장
▲강희철⑦⑨변호사
▲경익현⑥①한일시멘트부사장
▲고대은⑥②미우사장
▲고명윤⑤⑨국회법제예산실장
▲고문승⑥③제주전문대교수
▲고왕석⑥①변호사
▲고재량⑤①변호사
▲고재혁⑤⑦변호사
▲고형규⑥②변호사
▲곽영철⑦①
▲권갑주⑤⑥공한기획회장
▲권기수⑦⑦변호사
▲권방웅⑥④한진해운지점장
▲권영훈⑤⑨변호사
▲권일웅⑥⑨한국수출입銀부장
▲권종근⑤⑧변호사
▲금동신⑤⑦前단국대원장
▲금태환⑦⑥변호사
▲김　유⑥⑤한미은행부사장
▲김　철⑥③기업銀안양지점
▲김경룡⑦⑤한국은행부장
▲김광년⑥②변호사
▲김광원⑥③민자당울진지구당
▲김권택⑥⑦변호사
▲김기돈⑥⑦범한사장
▲김기인⑥②담배인삼公사장
▲김기천⑥⑤변호사
▲김기택⑥⑦신일상역사장
▲김길중⑥⑤민사지원부장판사
▲김대웅⑥⑧서울지검북부지청
▲김대환⑥⑤서울고법부장판사
▲김덕영⑥④한전종합조정역
▲김덕주⑤⑥변호사
▲김동규⑤⑥대한주택公사장
▲김동연⑦⑤한국야쿠르트차장
▲김동훈⑥①서울시청내무국장
▲김두환⑤⑦숭실대교수
▲김명식⑥⓪오더&케어스사장
▲김명종⑥⑤前제일생명국장
▲김문호⑤⑦변호사
▲김병윤⑦②두산건설이사
▲김봉수⑦⓪산업증권이사
▲김상기⑥⑦광주고법부장판사
▲김상섭⑥⑧동양베네피트보험
▲김상훈⑥⑤한국銀검사2국장
▲김상훈⑤⑧변호사
▲김선옥⑥⑧공정거래委처장
▲김성길⑥④변호사
▲김성산⑤⑧사회복지법인부장
▲김세형⑥⑥명지건설사장
▲김승호⑥⑥대전지검천안지청
▲김신택⑥②변호사
▲김양배⑥③한국상업은행
▲김영기⑤⑧롯데칠성음료전무
▲김영복⑥①前신용보증지점장
▲김영재⑥②변호사
▲김영철⑥⑧서울지검북부지청
▲김영호⑤⑦신아유리공업사장
▲김옥조⑥③한국언론연구원장
▲김용담⑦⓪부산고법부장판사
▲김용원⑦⑧변호사
▲김우현⑤⑥법무사협회고문
▲김원치⑥⑥서울지검동부지청
▲김윤옥⑦①신용보증기금부장
▲김윤희⑥⓪동화약품부사장
▲김응렬⑥③변호사

(20면에 계속)

서울大學校同窓會報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第203號

(21면에 이어)

▲안태영(77)서울중앙병원
▲양문호(65)경희대교수
▲양승렬(57)신경외과의원
▲양진묵(68)재중의원
▲엄미란(82)
▲엄융의(69)서울대교수
▲오병희(77)서울대교수
▲오성희(76)한양대교수
▲우동영(52)우동영의원
▲유명철(67)경희대교수
▲유병훈(73)중대병원소아과
▲유영철(66)남산의원
▲유원하(66)대한의학協이사
▲유인협(74)신일병원일반외과
▲윤경로(54)대성소아과의원
▲윤수중(79)신경정신과의원
▲이갑순(61)삼덕정형외과의원
▲이관세(72)
▲이광호(73)경상대교수
▲이명욱(71)혜화진단방사선과
▲이범홍(59)이내과의원
▲이봉하(55)이봉하외과의원
▲이성우(68)동국대교수
▲이성우(69)남산병원장
▲이성준(61)계명대교수
▲이수동(75)소아과의원장
▲이영근(58)대전을지병원
▲이용희(65)제주의료원
▲이원표(78)이원표내과의원
▲이인철(79)서울중앙병원
▲이재관(79)인천병원산부인과
▲이정자(69)충무병원실장
▲이정환(56)용인정신병원
▲이진용(63)서울대교수
▲이진호(76)이진호산부인과
▲이춘식(67)이춘식산부인과
▲이태정(74)남성의원
▲이필한(73)동암산부인과
▲이항진(50)이항진내과의원
▲이희동(61)이희동산부인과
▲임광세(47)한국자동차보험
▲장성근(77)장정형외과
▲장성호(72)고대안암병원
▲장우현(56)서울대교수
▲장인택(75)중대용산병원
▲장진근(78)한일병원소아과
▲전시영(77)경상대교수
▲전행조(72)전행조소아과
▲정규병(71)고대안암병원
▲정종환(62)마산복음병원
▲정태완(70)영일의원
▲조규형(74)신경정신과의원
▲채범석(58)서울대교수
▲최경진(74)최경진비뇨기과
▲최관흠(58)대성의원
▲최진영(65)최진영소아과
▲최창식(60)춘천성심병원
▲최창욱(60)순천향병원과장
▲최훈동(79)백산신경정신과
▲한영표(53)대우중공의무실
▲한진석(78)서울대교수
▲한홍무(62)동아대교수
▲허 훈(50)허훈복음병원
▲허봉렬(67)서울대교수
▲홍석일(77)원자력병원
▲홍영진(78)국립의료원

◇音樂大學

▲이성균(57)서울대교수
▲이재숙(63)서울대교수
▲장혜경(56)건국대교수
▲유덕희(53)서울교대교수

◇齒科大學

▲조흥순(51)조치과의원
▲한국영(50)한국영치과의원
▲고대윤(60)고치과의원
▲권오양(80)권오양치과의원
▲권일근(60)권치과의원
▲권종진(74)고대안암병원
▲김기현(60)마산치과의원
▲김기호(61)김기호치과의원
▲김덕상(66)김덕상치과의원
▲김동화(60)김동화치과의원
▲김문형(66)김문형치과의원
▲김사식(79)김사식치과의원
▲김선일(62)김선일치과의원
▲김성수(74)김성수치과의원
▲김세동(67)김세동치과의원
▲김세진(73)김세진치과의원
▲김소헌(58)김소헌치과의원
▲김영진(60)김치과의원
▲김용준(58)김용준치과의원
▲김인석(60)약수치과의원
▲김일봉(61)김일봉치과의원
▲김재권(61)김치과의원
▲김종두(59)명성치과의원
▲김종우(77)예치과의원
▲김종철(77)서울대교수
▲김종훈(73)김종훈치과의원
▲김철옥(60)김철옥치과의원
▲김택근(63)김택근치과의원
▲김현풍(66)김현풍치과의원
▲김홍석(61)김홍석치과의원
▲노철진(58)노철진치과의원
▲박건배(76)박건배치과의원
▲박경서(65)박경서치과의원
▲박연천(79)박연천치과의원
▲박영숙(55)을지병원
▲박용세(66)광주기독교병원
▲박용호(80)박용호치과의원
▲박종락(56)동민치과의원
▲박종훈(54)동신치과의원
▲박철성(67)박철성치과의원
▲박필규(74)박필규치과의원
▲박형기(59)박형기치과의원
▲배유홍(56)배유홍치과의원
▲백동준(62)백동주치과의원
▲백성기(78)백성기치과의원
▲백영일(66)백치과의원
▲성재현(72)경북대교수
▲성훈경(59)성치과의원
▲손 근(71)손치과의원
▲손대식(71)손대식치과의원
▲손오영(59)손오영치과의원
▲손한기(73)고려병원
▲송춘근(70)남경치과의원
▲신용환(62)신화치과의원
▲안정모(73)안정모치과의원
▲양명운(69)양명운치과의원
▲양원식(61)서울대교수
▲양희일(60)양치과의원
▲염경철(61)송월치과의원
▲염정배(74)염정배치과의원
▲오윤배(75)오치과의원
▲우원희(79)우치과의원
▲유서윤(58)유서윤치과의원
▲유새청(55)유치과의원
▲유영세(66)유영세치과의원
▲유재석(74)유재석치과의원
▲유치린(63)유치린치과의원
▲윤인수(86)윤인수치과의원
▲윤창혁(59)윤치과의원
▲윤학영(68)윤학영치과의원
▲윤훈용(57)윤치과의원
▲이갑승(81)이갑승치과의원
▲이건섭(58)이치과의원
▲이경수(79)동래제일치과의원
▲이경우(77)이경우치과의원
▲이동악(74)이동악치과의원
▲이배진(66)이배진치과의원
▲이범모(80)남서울병원
▲이병우(82)이병우치과의원
▲이병주(82)이병주치과의원
▲이병태(67)이병태치과의원
▲이병한(65)새명치과의원
▲이성환(61)백림치과의원
▲이승부(68)이태원치과의원
▲이승우(61)서울대교수
▲이승환(66)이승환치과의원
▲이신행(67)이치과의원
▲이영식(79)이영식치과의원
▲이영애(63)광민치과의원
▲이원용(58)원화치과의원
▲이유식(80)이유식치과의원
▲이재호(70)이호치과의원
▲이정태(73)정영치과의원
▲이준규(72)이준규치과의원
▲이지화(67)이지화치과의원
▲이한무(71)이한무치과의원
▲이희조(58)이희조치과의원
▲인태운(57)인치과의원
▲임순모(76)임순모치과의원
▲임채균(57)임채균치과의원
▲임학순(62)계홍치과의원
▲장항진(77)장항진치과의원
▲장홍수(57)장홍수치과의원
▲전복상(56)전치과의원
▲전진영(81)전진영치과의원
▲정건용(57)정치과의원
▲정영주(59)정영주치과의원
▲정종선(61)정치과의원
▲조성직(58)조치과의원
▲조용진(81)조용진치과의원
▲조행작(70)조행작치과의원
▲지윤택(62)지윤택치과의원
▲최경명(59)최경명치과의원
▲최금자(56)경희치과의원
▲최성근(71)최성근치과의원
▲최승은(70)최승은치과의원
▲최재대(72)국회의무실
▲최종운(67)최종운치과의원
▲하상완(70)신흥치과의원
▲한성훈(66)한성훈치과의원
▲허정국(59)한진치과의원
▲홍경택(71)홍치과의원
▲홍병준(82)홍병준치과의원
▲황오현(56)황오현치과의원
▲황정섭(79)황정섭치과의원

◇大學院

▲강명규(59)서울대교수
▲고성효(81)제주대교수
▲김광주(82)스탠다드차타드銀
▲김석웅(81)동의대교수
▲김완태(72)성지의원장
▲노충희(84)백병원비뇨기과
▲백 철(78)동양라이닝사장
▲윤평구(79)한남대교수

◇經營大學院

▲권영천(67)공평학원장
▲박홍식(71)산업기술정보원장
▲배무환(68)관동대교수
▲백대기(73)충북대교수
▲양승현(71)前태홍산업사장
▲조성면(69)경춘여행사회장
▲조정희(71)
▲최의목(68)건국대교수

◇教育大學院

▲엄기진(70)강원대교수
▲전동기(68)반포고교

◇保健大學院

▲김남천(77)서울보건大교수
▲박창진(72)중장하수처리소장
▲송달옥(74)송달옥비뇨기과
▲송준상(77)국립환경연구원
▲신학균(61)국립보건원부장
▲신현성(74)대구보건專교수
▲이규남(62)서울시보건환경硏
▲이기남(77)원광대교수
▲이양재(62)가족協인천지부
▲이영화(75)영진상사사장
▲이향련(73)경희대교수
▲정연강(65)중앙대교수
▲정영일(67)인제대교수

◇司法大學院

▲신기하(70)국회의원
▲조가윤(68)대한법률구조공단

◇新聞大學院

▲최 영(72)이화여대교수

◇行政大學院

▲고충삼(65)대한항공전무
▲김병남(70)삼덕회계법인
▲김안제(65)서울대교수
▲김익영(68)신용보증기금감사
▲김학주(74)동방아동복지회
▲박삼규(70)공업진흥청장
▲박용치(76)서울시립대교수
▲박준익(63)롯데칠성사장
▲서정헌(69)특허청기획실
▲연기호(70)연흥아세아사장
▲유상호(71)변호사
▲이창세(61)아세아문화사장
▲장석원(61)변호사
▲전주식(64)국가안보회의
▲조남호(73)서초구청장
▲최상철(64)서울대교수

◇環境大學院

▲권경구(79)동화종합기술공사
▲박상우(75)국토개발연구원
▲홍성관(79)선경건설부사장

지면관계상 일반회비납부자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20면에 이어〉

▲조용수㊿대구세영직물공장
▲주세환52前성남여고교장
▲최승환60잠실고교감
▲추교환55
▲추성구52
▲한범숙58전북대교수
▲한함윤57서울산업대교수
▲허판례60공지중교장
▲홍승직49고려대교수
▲홍태식71명지실전교수
▲황도생68한국교원대교수

◇商科大學

▲홍승희41외환銀동우회장
▲강연규48한주농원사장
▲김상규48금성불산회장
▲배갑순48상도주유소
▲강박전69
▲강시봉58우성제지사장
▲강중홍66한국銀총무국
▲고광범63(주)아상사장
▲고성규74두양상사부사장
▲고일성58동진INT사장
▲권영덕56前여산산업전무
▲권영수67신한국주유소사장
▲권오규75재정경제원기획국
▲금창대63한국개발리스감사
▲김갑수55진화지업사장
▲김경덕57前외환은행
▲김규현56前한일은행
▲김남현57대창흥업상무
▲김도연68한솔제지부사장
▲김병기59김병기세무서
▲김병주62서강대교수
▲김상렬68외환銀휘경동지점
▲김석곤57감사원감사
▲김선길52前제천교육장
▲김성락64동부건설총무이사
▲김세우59前손해보험협회
▲김수용67서강대교수
▲김수철66금성계전상무
▲김수행65서울대교수
▲김승국74옥수유통사장
▲김승웅68前한국트렌스고문
▲김시왕63신탁銀고객관리부
▲김영건66기업銀자금부장
▲김영곤55신한창업투자감사
▲김영근68조흥銀도화동시점
▲김영대67한국銀자금부장
▲김영일65신봉기업사장
▲김영전59(주)두방사장
▲김영준65한일카펫트사장
▲김영찬52경수투자금융이사
▲김영환59태경산업회장
▲김원길68국회의원
▲김종락63공인회계사
▲김종원61진유산업이사
▲김종호58한일렌탈부사장
▲김중기58성원피혁사장
▲김창일57안국상호신용금고
▲김천식64서울문고사장
▲나중헌58前한국기업리스
▲남원일74대유증권상무
▲남이현67세무사사무소
▲노창환57부국냉장전무
▲류종묵65홍국단철사장
▲류형벽48우화산업사장
▲문성철58영화회계법인고문
▲민경재59광은리스회장
▲민병태64아세아종합금융
▲박가경59금강건설회장
▲박건호63쌍용중공업상무
▲박경하58한국기업리스
▲박광화59경일상호신용금고
▲박근식64한일銀인력개발부
▲박근준65대한제당사장
▲박명규56한일증권고문
▲박병문64신일산업사장
▲박상효68은행감독원검사역
▲박성출66국민銀검사역
▲박세만49세양공업사장
▲박영규57원일양행사장
▲박영조65HOYA LENS
▲박원배64한양화학사장
▲박종후59前한국전력지점장
▲박중대57한국방역산업
▲박중진75동양생명보험증권
▲박치규63
▲박태영66국회의원
▲박홍기74
▲배철호75재정경제원과장
▲백구현61국제과학협력센터
▲백세현74국제산업정보硏
▲백승조57조흥증권사장
▲백영탁60서광기획사장
▲변창기58동방산업사장
▲서영교66안진건설사장
▲서청원68삼일회계법인
▲손　정60前경남리스고문
▲손경수60한터애드컴회장
▲송성권54유성상무
▲송진섭56前한미강업회장
▲신동규74
▲신석휴62인일회계사무소
▲심상국63남경개발회장
▲심상은64제일銀정화기획부
▲심재석57장기신용銀전무
▲안경태75삼일회계법인
▲안영목61새한상호신용금고
▲안재원65동일리트마라톤
▲안태호53
▲안홍환74현대석유화학이사
▲양성진57동국창업투자
▲양재수65공인회계사
▲양홍모50성균관대교수
▲엄일영57동서경제硏부회장
▲오규삼67유미개발사장
▲오덕균57엑스포재단이사장
▲오세영65국제통운상무
▲오영인62세라금속사장
▲우두헌67지남전자전무
▲원우식56삼화상호신용금고
▲위성복64조흥은행상무
▲유대진56옥광상사사장
▲육순응62공인회계사
▲윤귀섭68한국銀국제부
▲윤대윤67외환銀강서지점
▲윤문환56한두수산회장
▲윤양현59前교보문고사장
▲윤하균61수산스타사장
▲이경재61한국은행이사
▲이광표65영한상사사장
▲이광현66럭키금성부사장
▲이근경75재정경제원과장
▲이동철66외환銀연수원
▲이만식57중부리스사장
▲이명기63(주)모라도상무
▲이문상55대양상호신용금고
▲이병호63고려열연전무
▲이상익66계양전기사장
▲이상학63제일銀검사역
▲이성구67동방포루마사장
▲이성태68한국銀창원지점
▲이순국68신호제지회장
▲이순신58해창양복점사장
▲이승균60경남銀서울지점
▲이영보66중앙상호신용금고
▲이영세55대한전자재료
▲이영우62외환투자자문사장
▲이용언65롯데건설상무
▲이원기55세무회계사무소
▲이재원65새한랜탈사장
▲이재환60
▲이정권62한국기업평가
▲이주찬59상업증권사장
▲이진우55태라양행회장
▲이철순57前고려합섬
▲이태영65대정트레이닝사장
▲이태환62내외반도체부사장
▲이한동58前동남은행
▲이한욱57한국종합열기감사
▲이효중65범양냉방부사장
▲이흥림66한일銀수송동지점
▲이희수68그린소주사장
▲이희순61세무사사무소
▲임용택66주물공업협동조합
▲임종홍63신세계주택사장
▲장순규59아리롱상사장
▲장화진61한일銀여신기획부
▲전병운74세풍사장
▲전영배58대성전기감사
▲전용수66인하대교수
▲정기종64외환銀광주지점
▲정병호57인천항만운송협회
▲정상진57현양상사회장
▲정승재55전북은행장
▲정영로65제일銀증권부장
▲정용익63한일銀신탁부장
▲정재탁62신구전문대교수
▲정준철64농협중앙인천지회
▲정택순57NHF무역감사
▲제환석74코오롱상사이사
▲조병해57서울향료사장
▲조원구68前뱅커스은행
▲조재열74삼성코닝이사
▲주동석64삼양사전무
▲주진표61천원수산사장
▲지환영58오성INT사장
▲최규성63고려화성사장
▲최문환57前창원세무서장
▲최선곤61주택은행중부지역
▲최성주59(주)대상사장
▲최연종62한국은행이사
▲최종찬72재정경제원국장
▲최진재64데이비스제약사장
▲탁승호72한국銀금융결제부
▲한국종67한국전력公처장
▲한석윤58덕신실리콘회장
▲한영구65기업銀서동지점
▲한철환58한일투자자문상부
▲현지설64삼진상사사장
▲홍영기61부국사료사장
▲홍일표63한국銀강남지점
▲황하현53한양대교수

◇獸醫科大學

▲권순경62서울시청위생계
▲김진구67성일약품사장
▲김홍욱68공안당한의원
▲나종극58스피드라인오토
▲박종영65중앙케미칼부사장
▲박춘병70매일유업이사
▲양영섭56일양피혁
▲윤화중58건국대교수
▲이각모69(주)동방사장
▲이상선78한국바이엘화학
▲이우근73서울우유경인지소
▲이원창58건국대교수
▲이효춘58미락식품실장
▲정대연59춘성가축병원
▲조상래75연세대교수
▲조충호53서울대교수
▲채수운69축협중앙회차장
▲천병득63축협조합중앙회
▲최운석56상림관리수의사
▲최재윤59한국과학기술원

◇藥學大學

▲노일협48숙명여대교수
▲고형훈63고일약국
▲김광욱73태평양제약실장
▲김규호61새서울약국
▲김근혁75서울약국
▲김기종75황제약국
▲김명수75KIST연구원
▲김병규59세종약국
▲김삼영62영진약국
▲김영호61대림양행사장
▲김원석60두만약국
▲김충섭65KIST응용과학
▲김태욱71현대백화점약국
▲나명철69나약국
▲문병우78보건복지부과장
▲박건치65삼익제약전무
▲박동순64신암우리약국
▲박상덕66연안약국
▲박승규63장수약국
▲박용문69자모약국
▲서정진65신풍제약연구소장
▲서진호60서약국
▲서한익66초당약품전무
▲송풍오59신진약품회장
▲신철교79아주대병원과장
▲양태선71고려제약전무
▲엄기정60유한에스피제약
▲오명근67지명약국
▲오원식60태평양화학부사장
▲우동일58반도제약사장
▲유성열79한미약품생산부장
▲유영휘62삼익제약부사장
▲윤인수74윤인수치과의원
▲윤효선57삼선교약국
▲이계준68서울대교수
▲이관순65정성약국
▲이대갑57참약국
▲이성태64신풍제약상무
▲이순석65(주)한수전무
▲이윤재63한일약국
▲이은방59서울대교수
▲이정준72한국과학기술원
▲이정흥62동원약국
▲이창기59대륙ENG부회장
▲이천우64동아약국
▲이환달65베링거인겔하임
▲임승종79임승진약국
▲임현정68삼덕약국
▲장안수67동아제약이사
▲장일무66서울대교수
▲정연진73일동제약실장
▲정원근54서울대교수
▲정한문78국민약국
▲조경일68명문제약
▲조내규62제중당약국
▲조영환75서울중앙병원
▲조용호64대일약국
▲조을형58천경약국
▲조철원63신강약국
▲주춘대58반도제약전무
▲지현석60대우약품사장
▲최정애64중경약국
▲하만화65한진약국
▲하성호58곤지암약국
▲한규흥68동아제약이사
▲한한길67우리약국
▲홍기정64충청귀약국
▲홍성만74제일제당개발부
▲홍우일65유한양행상무
▲황병룡60동국제약전무
▲황봉자65건강약국

◇醫科大學

▲김세경45한국병원과장
▲주근원43한국자동차보험
▲김광수50광생의원
▲김수명47춘천간호專교수
▲박제성55수도의원
▲선덕영49선이비인후과의원
▲염택구49염안과의원
▲이문기49해성병원부원장
▲이주원48의료보험연합회
▲이필영49
▲강신일64강신일내과의원
▲고　홍75서울대병원마취과
▲고영박70한림의대성심병원
▲고재균56고재균외과의원
▲구성대68군산시보건소
▲구제호75용인기독의원
▲김　권72서울외과의원
▲김건렬59단국대교수
▲김기진53김기진의원
▲김대성70이비인후과의원
▲김도진49김도진내과의원
▲김삼현74단국대병원
▲김시황59서울대교수
▲김영근51기화산부인과의원
▲김영덕56원효로의원
▲김영진79김영진성형외과
▲김예회59백병원내과
▲김용진53
▲김우곤61김우곤안과의원
▲김윤수64삼오의원
▲김은덕59김의원
▲김인호78김인호내과의원
▲김정현73김정현의원
▲김종선66서울대교수
▲김종환57서울대교수
▲김주현71서울대교수
▲김주홍79인하병원비뇨기과
▲김진영56서울대교수
▲김창욱78김창욱내과의원
▲김풍명67명피부과의원
▲김행석53피부비뇨기과의원
▲김형규61김형규외과의원
▲노재규74서울대교수
▲도광찬71도광찬소아과의원
▲명호진58서울대교수
▲문신용74서울대교수
▲문진수73가야자모의원
▲문현수74부천세종병원
▲민양기71서울대교수
▲박규홍75피부비뇨기과의원
▲박대관51박외과의원
▲박명욱77성형외과의원
▲박상철73서울대교수
▲박성회75서울대교수
▲박영철52동강의료재단
▲박영희50부산내과의원
▲박원희79보훈병원비뇨기과
▲박재형72서울대교수
▲박조렬58신경정신과의원
▲박종영78한강성심병원
▲박철규67서울대교수
▲박헌엽61국립경찰병원
▲박현수74구로구보건소
▲방덕환59고한성심의원
▲배규룡74한독병원
▲배대경70경희대교수
▲변종선57숭실의원
▲서정기73서울대교수
▲서정돈67서울대교수
▲서정문56서이비인후과
▲선우대활77선우이비인후과
▲손춘호53광보의원
▲송기운58남대문의원
▲송만준57송만준의원
▲송명근76서울중앙병원
▲신용철70산부인과의원
▲신현정69신현정내과의원
▲심동원57순천향대교수
▲심영수69서울대교수
▲심윤상69원자력병원
▲안돈희67국립의료원

〈22면에 계속〉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 인

◇증권예탁원 鄭仲杞(64년 商大卒)＝2좌
◇대우중공업 尹永錫(64년 商大卒)＝1좌
◇(주)쌍용정공 李鍾奎(60년 文理大卒)＝1좌
◇(주)남흥건설 文貞奎(56년 工大卒)＝1좌

개 인

◇人文大學

▲강성위(86) ▲고경하(85)
▲권성환(88) ▲김기태(85)
▲김성준(88) ▲김승욱(87)
▲김영란(87) ▲김진수(85)
▲김학수(87) ▲박찬수(86)
▲박혜경(88) ▲안경모(82)
▲안창원(83) ▲유재홍(77)
▲이동일(89) ▲이옥정(85)
▲이용범(84) ▲이찬규(86)
▲전장환(78) ▲정윤광(80)
▲최남재(89) ▲한상규(87)
▲함수경(87) ▲홍석철(84)

◇社會科學大學

▲강경만(58) ▲강병일(84)
▲강신택(59) ▲고봉준(89)
▲권혁준(87) ▲김규석(59)
▲김문권(66) ▲김영수(64)
▲김인수(88) ▲김장호(80)
▲김주태(58) ▲김진국(83)
▲김창호(65) ▲김태식(82)
▲김태천(70) ▲김희철(88)
▲남궁원(89) ▲남상용(80)
▲민성원(89) ▲박찬문(57)
▲박홍규(66) ▲박찬범(66)
▲박화순(77) ▲백종무(48)
▲변용찬(59) ▲서종원(81)
▲손용엽(81) ▲송철원(65)
▲신승철(63) ▲신용하(61)
▲신태형(75) ▲염정균(57)
▲원덕철(75) ▲이근수(69)
▲이대우(77) ▲이대우(88)
▲이덕주(60) ▲이동복(57)
▲이동욱(88) ▲이만식(57)
▲이성구(80) ▲이성해(65)
▲이영화(89) ▲이창수(89)
▲이홍주(65) ▲임재철(77)
▲장상수(82) ▲전완식(66)
▲정우감(68) ▲최 욱(85)
▲최경락(75) ▲최규봉(57)
▲최원석(86) ▲최원익(78)
▲최진재(64) ▲하승보(86)
▲한대식(77) ▲한만엽(86)
▲홍순권(80) ▲황경호(58)
▲황활원(63)

◇自然科學大學

▲곽민곤(86) ▲권병수(70)
▲기준학(85) ▲김건영(88)
▲김명규(89) ▲김명석(72)
▲김영제(88) ▲김재국(76)
▲김하진(62) ▲박종학(88)
▲박호현(87) ▲방난희(87)
▲석문식(74) ▲설재홍(88)
▲양남실(88) ▲양재현(51)
▲윤미숙(87) ▲윤석준(89)
▲이건형(80) ▲이상우(85)
▲이우길(88) ▲이태림(79)
▲임창주(87) ▲장덕주(59)
▲전도용(86) ▲전종성(88)
▲정찬용(88) ▲조재원(84)
▲조준래(81) ▲최광렬(88)
▲최용근(63) ▲표순승(68)
▲허순도(88)

◇家政大學

▲강원나(75) ▲김은실(87)
▲박근주(87) ▲배순영(89)
▲서경원(89) ▲신기영(89)
▲정희경(87) ▲최난희(87)

◇看護大學

▲김옥련(70) ▲박문희(63)
▲박호순(75) ▲송효숙(85)
▲이명선(75)

◇經營大學

▲김왕용(82) ▲김충현(89)
▲박병호(78) ▲양돈호(89)
▲윤태준(81) ▲이낙용(81)

◇工科大學

▲고대종(68) ▲고성훈(89)
▲권혁정(56) ▲기균도(72)
▲김경열(55) ▲김경일(88)
▲김광성(87) ▲김동명(89)
▲김명수(89) ▲김병래(58)
▲김병욱(80) ▲김순찬(83)
▲김용수(77) ▲김우식(60)
▲김우식(85) ▲김은수(76)
▲김은종(71) ▲김익곤(74)
▲김재환(85) ▲김정수(72)
▲김준환(83) ▲김지덕(70)
▲김창균(78) ▲김치봉(87)
▲김형석(85) ▲김희범(75)
▲김희정(83) ▲남재도(84)
▲류홍석(72) ▲민재호(58)
▲박갑태(87) ▲박경륜(84)
▲박남주(89) ▲박노상(61)
▲박달수(73) ▲박동혁(79)
▲박명호(89) ▲박문규(79)
▲박상집(82) ▲박수현(89)
▲박윤영(84) ▲박지수(89)
▲박철환(79) ▲박홍만(86)
▲방윤덕(79) ▲백선욱(86)
▲변정근(57) ▲복거성(72)
▲서석철(58) ▲서선덕(79)
▲서정인(86) ▲송남영(78)
▲신상준(89) ▲신정철(82)
▲신현석(60) ▲엄익준(73)
▲오영전(67) ▲오응석(54)
▲유인재(81) ▲유재극(57)
▲유재소(65) ▲유형근(80)
▲윤영상(78) ▲윤재건(60)
▲윤재명(70) ▲윤재은(86)
▲이강훈(71) ▲이경훈(86)
▲이규열(71) ▲이규택(89)
▲이덕림(65) ▲이병국(88)
▲이삼형(49) ▲이상경(72)
▲이삼훈(86) ▲이영석(88)
▲이용희(87) ▲이윤종(84)
▲이인열(89) ▲이재순(78)
▲이정배(89) ▲이정호(65)
▲이정훈(88) ▲이종구(88)
▲이태섭(72) ▲이학성(81)
▲이혁원(80) ▲이황수(75)
▲이효종(89) ▲임동진(79)
▲임병세(79) ▲임종근(80)
▲임해룡(86) ▲장문현(63)
▲장성태(78) ▲장세창(69)
▲장승룡(87) ▲장희정(81)
▲정경민(89) ▲정재수(81)
▲조용남(75) ▲차옥선(56)
▲채방은(70) ▲최상민(68)
▲최상일(79) ▲최영하(88)
▲최일동(79) ▲최장동(60)
▲최진희(79) ▲최홍섭(85)
▲한원우(75) ▲홍기준(73)
▲홍순영(78) ▲홍영의(65)
▲홍의석(87) ▲황각규(77)
▲황성호(88) ▲황인범(78)
▲황창엽(83)

◇農科大學

▲강우상(72) ▲강창수(87)
▲권영규(59) ▲김경기(82)
▲김관진(73) ▲김구용(76)
▲김대열(87) ▲김명진(84)
▲김문수(60) ▲김문식(86)
▲김성균(81) ▲김시홍(73)
▲김유인(70) ▲김종관(85)
▲김종국(70) ▲김중태(84)
▲김창호(66) ▲노광희(88)
▲박복남(89) ▲방석남(78)
▲서정운(61) ▲손두형(75)
▲송원종(88) ▲송춘종(59)
▲신건성(66) ▲신기철(78)
▲신대영(66) ▲신대용(57)
▲안문희(64) ▲안승요(55)
▲안희철(72) ▲엄기덕(49)
▲오세정(85) ▲왕병하(88)
▲우부일(68) ▲유일웅(71)
▲이동훈(82) ▲이수용(81)
▲이재환(80) ▲이주열(58)
▲이준재(63) ▲이희문(71)
▲전우방(61) ▲정광호(88)
▲정기수(58) ▲정병관(85)
▲정운조(52) ▲정진호(49)
▲조성환(71) ▲지광현(58)
▲채상목(85) ▲최승호(83)
▲한경희(86) ▲한상립(83)

◇文理科大學

▲고봉진(64) ▲김종헌(74)
▲도홍길(65) ▲문부홍(71)
▲변 형(65) ▲송영오(70)
▲신상준(60) ▲신인영(72)
▲유승삼(65) ▲음정학(75)
▲이영서(75) ▲임연철(72)
▲전영철(65)

◇美術大學

▲강신권(88) ▲김창수(86)
▲민병목(59) ▲박대희(85)
▲백영수(83) ▲이관호(80)
▲이원자(63) ▲임순자(73)

◇法科大學

▲곽노준(78) ▲구남수(85)
▲김경문(66) ▲김봉수(70)
▲김위수(66) ▲김학자(89)
▲김호룡(52) ▲김홍수(47)
▲박성철(79) ▲박연시(57)
▲박윤해(88) ▲박정규(61)
▲백태현(87) ▲신교준(66)
▲안응호(56) ▲양인석(60)
▲우종균(85) ▲우창록(74)
▲유광현(77) ▲유일준(89)
▲유종렬(81) ▲윤신홍(72)
▲이기웅(54) ▲이병화(89)
▲이수모(69) ▲이승욱(88)
▲이신섭(66) ▲이은기(84)
▲이창수(57) ▲임희철(89)
▲장행훈(58) ▲장호중(89)
▲전병덕(51) ▲전종덕(77)
▲전철순(58) ▲정태창(63)
▲조남돈(76) ▲주경숙(76)
▲주양일(67) ▲차맹진(60)
▲최정수(73) ▲홍명수(88)

◇師範大學

▲공소옥(42) ▲구준회(60)
▲구현회(55) ▲김규상(86)
▲김기민(79) ▲김무영(75)
▲김병주(86) ▲김상범(89)
▲김선식(62) ▲김영찬(56)
▲김용석(58) ▲김윤기(53)
▲김응수(73) ▲김정득(89)
▲김종환(74) ▲김중호(66)
▲김진희(88) ▲김철교(76)
▲김호연(80) ▲남억우(56)
▲노병철(88) ▲문명희(82)
▲문영식(77) ▲박영욱(87)
▲박장순(57) ▲박호영(74)
▲서계현(82) ▲서정욥(51)
▲송수남(58) ▲승만호(80)
▲신상철(73) ▲신우현(63)
▲신태우(62) ▲심규선(80)
▲위호정(87) ▲유건집(60)
▲유병석(60) ▲윤병렬(61)
▲윤종상(56) ▲윤희원(79)
▲이원숙(88) ▲이재용(83)
▲이종락(62) ▲이지혜(86)
▲임성근(74) ▲임정빈(61)
▲정현백(75) ▲조동섭(86)
▲최봉종(70) ▲최용어(67)
▲최진오(66) ▲하상기(78)
▲한상열(62) ▲한종태(68)
▲한화선(77) ▲홍정희(60)
▲황월수(75)

◇商科大學

▲권순중(67) ▲김덕영(67)
▲김병수(66) ▲김종훈(57)
▲김철홍(66) ▲노정욱(52)
▲박건영(68) ▲박상은(61)
▲백승조(57) ▲백운생(66)
▲서원식(87) ▲성하현(63)
▲송인덕(69) ▲유춘상(61)
▲이귀재(64) ▲이상헌(83)
▲이상훈(63) ▲이영상(64)
▲이재천(63) ▲최남해(56)
▲한정복(70) ▲현인준(69)

◇獸醫科大學

▲권순경(62) ▲김범래(56)
▲김오섭(70) ▲복선균(73)
▲신영무(70) ▲유병문(71)
▲이성탁(65) ▲이승용(79)
▲조상래(75) ▲차종상(60)
▲최병조(80) ▲최용석(78)
▲한태우(49)

◇藥學大學

▲김상덕(76) ▲김영일(65)
▲김옥경(87) ▲김용찬(61)
▲김우영(71) ▲김제학(83)
▲박사룡(68) ▲박준규(89)
▲서진호(60) ▲유재은(65)
▲이강영(61) ▲이상명(75)
▲이예식(49) ▲이은진(89)
▲이태훈(57) ▲전용동(47)
▲정재훈(89) ▲조영민(78)
▲최학배(80) ▲한용해(86)
▲황봉자(65) ▲황인수(69)

◇音樂大學

▲권용숙(89) ▲김혜경(54)
▲김혜서(89) ▲김화숙(77)
▲박희정(89) ▲송명익(48)
▲송복자(88) ▲이귀임(85)
▲이상만(61) ▲이의향(54)
▲이지원(89) ▲이현숙(69)
▲조혜경(77) ▲지용훈(92)
▲홍명숙(78) ▲홍은주(80)

◇醫科大學

▲김귀윤(78) ▲김성현(89)
▲김영진(79) ▲김익태(85)
▲박성구(66) ▲박영석(86)
▲박종명(76) ▲박주배(74)
▲박중수(76) ▲배진선(64)
▲송제일(79) ▲신형식(77)
▲엄영섭(48) ▲엄원호(61)
▲유형래(60) ▲이 철(73)
▲이순탁(48) ▲이정운(60)
▲이중표(59) ▲장순기(74)
▲조환구(50)

◇齒科大學

▲김명진(86) ▲김상숙(77)
▲김성남(73) ▲김신묵(65)
▲김왕국(59) ▲김정수(89)
▲김창희(68) ▲박광호(84)
▲변석두(57) ▲성영환(56)
▲송균섭(79) ▲송철규(74)
▲양영태(70) ▲원재용(81)
▲유재석(74) ▲이대원(60)
▲이수백(74) ▲이영준(83)
▲이재호(70) ▲이정호(66)
▲이종흔(61) ▲이진규(84)
▲임용준(72) ▲전태국(59)
▲정옥균(51) ▲정재영(74)
▲최낙준(78) ▲최정식(60)

◇經營大學院

▲권성휘(88) ▲배신효(68)
▲서상혁(82) ▲임순택(85)
▲정기한(81) ▲정인성(75)

◇敎育大學院

▲신호응(71)

◇保健大學院

▲김남천(77) ▲김성천(88)
▲박명윤(76) ▲박순영(63)
▲박희서(79) ▲송달욱(74)
▲안상경(60) ▲이승욱(77)
▲이영화(75) ▲이용욱(66)
▲장영기(87) ▲정혜운(66)

◇新聞大學院

▲김규문(76) ▲이제훈(71)
▲최 호(70)

◇行政大學院

▲강희복(73) ▲김익영(68)
▲문영극(69) ▲문창성(72)
▲박석인(72) ▲박준수(62)
▲박태훈(70) ▲변희준(85)
▲서재근(64) ▲소정호(61)
▲손종대(70) ▲양수일(66)
▲우양구(74) ▲유재인(62)
▲윤용호(75) ▲이두헌(74)
▲이재영(62) ▲임규오(59)
▲임승언(62) ▲임종섭(77)
▲임태유(64) ▲전수일(62)
▲전화수(73) ▲정기옥(60)
▲정순관(63) ▲채희성(71)
▲최근선(58) ▲한영희(55)
▲황두영(69)

◇環境大學院

▲김기천(87) ▲박종무(86)
▲박춘배(79) ▲양승호(89)
▲오병태(82) ▲이병래(74)
▲정청조(82) ▲조성학(88)
▲한승훈(89)

모고소식

第20대 총장후보에 李壽成·權肅一교수

▲모교는 지난달 20, 21일 양일간 2차투표를 거쳐 총장후보를 선출했다.

모교는 지난 1월 21일 두번째 직선총장 선출을 위한 2차 교수투표를 실시, 총장후보로 李壽成법대교수·權肅一자연대교수 2명을 선출했다.

20일 1차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실시한 이날 2차투표에서 李교수는 전체투표자 1천1백5표중 5백32표, 權교수는 2백95표를 얻어 최종후보로 선출됐다.

두 교수는 金鍾云총장 명의로 金淑喜교육부장관에게 추천되며, 이중 1명이 金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월말 金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제20대 총장으로 임명한다.

형법과 형사정책을 전공한 李교수는 학생처장과 법대학장을 거쳐 교내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2위 총장후보로 추천된 權교수는 자연대학장과 연구처장을 거치면서 모교의 연구여건 개선에 주력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금교수제 첫 실시

3년간 계약제로 채용되는 기금교수가 3월에 처음으로 임용된다.

모교는 지난달 25일 사회대 지리학과 1명, 경영대 3명, 의대 10명등 3개 단과대 14개 전공분야에 기금교수를 채용키로 하고 서류접수를 마감한 결과 2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금교수는 모교가 자체 조성한 발전기금·기업출연금 등 외부기금을 재원으로 채용하는 계약제교수로 임용기간에 국가공무원 신분은 주어지지 않지만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교육·연구에 종사하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후 연구·강의업적을 평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도체 공동연구소」 20억 연구계약 수주

반도체공동연구소(소장 黃琪雄)는 최근 삼성전자(주)와 나노(nano)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로 20억원을 지원받는 연구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술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초미세가공기술이다. 同연구소는 이번 연구계약이 산학협동의 활성화와 연구시설 확충 등 연구조건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계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는 신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과학대 공개강좌

自然科學大學(학장 李仁圭)이 한국일보社와 공동주최하고 대우그룹이 협찬하는 「제2회 자연과학대학 공개강좌」를 2월9일과 10일 이틀동안 모교 문화관에서 개최한다.

「21세기의 과학의 쟁점들」을 주제로 한 이번 공개강좌는 지난 해 「21세기의 주역─자연과학의 현황과 전망」에 이어 21세기 과학문명의 요체가 되는 자연과학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널리 알리고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희망자에 한해 자연과학대학의 실험실, 천문대, 전산원 등을 16일 상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95 입시경쟁률 2.26대 1

지난 1월 5일 입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교는 5천45명 모집정원(1백8개 모집단위)에 1만1천4백12명이 지원, 지난해(1.91대1)보다 높은 2.2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음대 성악과(남)가 16명 모집에 87명이 지원, 5.44대1의 최고경쟁률을 보인 반면 2명을 뽑는 작곡과 작곡전공(지휘)에는 지원자가 없어 81년도 법대이후 13년만에 미달학과가 생겼다. 이에따라 피아노전공과 성악전공에서 1명씩을 더 선발, 지휘분야 정원 2명을 채울 계획이다.

한편 대학별고사가 12~13일 양일간 실시됐으며 27일 합격자 발표에서 전체수석합격에 공대 전기·전자·제어공학과군을 지원한 鄭盛澤(부산과학고)군이 1천점 만점에 9백15.95점으로 영광을 차지했으며 인문계 수석합격은 사회대 경제·국제경제학과군에 지원 8백96.95점을 얻은 柳尙潤(광주과학고)군이 차지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38세로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교육과를 지원한 金鍾烈씨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입시에선 모두 5쌍의 쌍둥이가 합격, 주위의 부러움을 샀으며 25년간 모교 수위(기능직 10급 공무원)로 근무해 온 柳鎬春씨의 막내 외아들인 印相(남강고卒)군이 공대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과군에 합격해 화제가 됐다.

치의학도서관 중앙도서관 분관으로 승인

齒科大學(학장 李種昕)은 최근 치의학도서관이 중앙도서관 치의학 도서분관으로 정식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치과대학 1층에 마련된 치의학도서분관은 총면적 2백57평에 열람실, 서고, 시청각실, 문헌검색실, 컴퓨터 교육자료실등을 갖추고 있다.

李학장은 『16년만에 치의학도서분관이 부활하여 뜻깊다』고 말하고 현재 시청각자료실에는 교육용 임상테이프가 1백53개 비치돼 있어 모든 개원의들에게도 시청각 자료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金重守분관장은 『동문들이 보내온 기금으로 구입한 책들을 동문기증도서로 분류, 후배들이 선배들의 사랑과 관심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 방송스튜디오 개관

▲신문학과는 지난달 17일 방송스튜디오 개관식을 가졌다.

新聞學科(학과장 朴承寬)는 지난 1월 17일 사회과학대학 신축건물에서 한국방송공사(사장 洪斗杓)로부터 방송실습기자재를 기증받아 방송스튜디오 개관식을 가졌다.

金鍾云총장, 金商周부총장을 비롯 사회대교수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金총장은 축사를 통해 『다채널·다매체시대에 스튜디오를 개관, 전문적인 예비방송인을 양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 졸업생들이 방송계의 기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金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洪斗杓사장은 『대학과 방송이 협력해 방송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우수한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계속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관한 방송스튜디오는 텔레비젼(55평)·라디오(15평)방송시설을 갖추고 영상·음향관계시설 일체와 유메틱 녹화기 5대, 조명 딤마 1대, ENG카메라 3대, 10여대의 마이크를 갖춘 음향시설(76종 80여점)등 고가의 장비로 꾸며졌다.

非서울대 첫 학장 탄생 경영대학 崔鍾泰교수

經營大學(학장 金植鉉)은 지난 22일 임기가 만료된 金학장의 후임으로 영남대출신의 崔鍾泰교수를 선출했다.

모교가 외국에서 수학한 교수를 제외하고 非서울대출신 교수를 선출한 것은 임명제시절을 포함, 이번이 처음으로 모교가 세계화등 현대사회의 조류에 따라 변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崔교수는 65년 영남대를 졸업한 뒤 오스트리아 린츠大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받고 76년부터 모교교수로 재직해왔으며 그동안 노사관계연구소 소장, 인사관리학회장등 다양한 사회활동과 「국제경영학리뷰」등의 국제학술지에도 독어로 된 인사관계 논문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업적을 보여왔다.

〈燮〉